

2015
9

한국 YWCA

이달의 생각

여성의 온전한 참여 더 이상 기다리지 말자

특집

YWCA 평화운동,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

탈핵 이슈와 동향

핵발전소 주변에 산다는 것의 의미

이달의 현장①

YWCA 청소년 탈핵캠프





사진은 1931년 제4회 기청공민학교 졸업생

YWCA
OF
KOREA

1920년대는 사회전반에 걸쳐 계몽주의가 성행하고 교회, 사회단체들이 각기 야학을 설치하여 여성들의 지위 향상과 생활 개선을 위해 저마다 노력하였다. 서울YWCA는 당시 임대하고 있던 태화여자관에서 성경학원을 개설하고 밤에는 이 교실을 빌려서 여성야학을 시작하였고 1924년 2월 16일에는 부녀자 문맹퇴치를 위한 여자 노동야학교를 설립했다.

이 학교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저소득층 여성들과 학령기를 놓친 고아들을 위한 부녀자 교육 기관이었다. 강습을 받으러 오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삼베나 비단을 짜는 직조 공장, 고무 공장, 제사 공장, 연초 공장에 다니는 가난한 부인들이었다.

학생들은 두 나라의 국어책을 책상 밑에 감추고 그들의 눈을 속이면서 우리말 공부와 기독교정신의 교육을 받았다. 일제의 압박과 설움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기청야학원은 1947년 정식으로 '기청공민학교'로 인가를 받았다. 전후 고아와 가난한 소년소녀를 위한 학교로, 1960년대 이후에는 30세 전후의 가정주부에서 70세 노인 에 이르는 광범위한 연령층을 위한 한글 학교로 역할을 했다.



표지이야기

"에너지 전환으로 핵 없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함께 만들 것을 다짐합니다" 9월 3일 부터 경주와 산청에서 열린 YWCA 청소년 탈핵캠프에서 생명 세상에의 다짐을 했습니다.

9월~10월 한국YWCA 주요일정

- 9월 17일 한국YWCA 정책협의회
- 9월 18일 여성운동강화를 위한 워크숍
- 9월 24일 NCS 중간보고회
- 10월 6일 광복 70주년 기념 제 1회 평화나눔페스티벌
- 10월 10일~17일 제 28차 YWCA 세계대회 (태국 방콕)

목 차

- 04 이달의 생각 여성의 온전한 참여 더 이상 기다리지 말자 | 김은경
- 05 월례아침기도회 사막의 소리 | 이세형
- 06 연합회 사무총장 월례보고 9월의 한국YWCA | 유성희

특집 YWCA 평화운동,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

- 08 ① 평화에 대한 성서적, 여성적 이해 | 최만자
- 10 ② 여성주의 평화운동 지형에서 본 YWCA 평화운동 | 김엘리
- 12 ③ 통일은 치유다 | 전우택
- 14 평화를 위한 YWCA 공동 기도문

일본의 침략전쟁과 일본군 성노예 역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촉구하는 한국YWCA 입장

- 16 여성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 김마리아 선생 | 박용옥
- 18 평화 서울YWCA 청년대학생 평화캠프 | 서울YWCA 청소년팀
- 20 청년 지역별 Y-턴 전국대회 | 이지은

탈핵 이슈와 동향 핵발전소 주변에 산다는 것의 의미 | 김영희

- 24 이달의 현장 ① YWCA 청소년 탈핵캠프 | 신보미
- 26 이달의 현장 ② 제2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 | 황기숙
- 28 이달의 현장 ③ 하남 생명꿈나무돌봄센터 | 김상은
- 30 세계YWCA 변화를 주도하는 담대한 지도력 -2015년 세계대회를 준비하며 | 이명혜
- 32 원로에게 듣는다 주선에 명예연합위원을 만나다 | 편집실
- 34 북한어린이돕기 결혼 1주년 기념기부 | 북한어린이돕기사업단

- 36 연합회 소식
- 39 회원YWCA 소식

여성의 온전한 참여 더 이상 기다리지 말자

글 |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탈핵운동센터 위원장)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변화는 얼마나 될까? 전쟁, 질병, 핵발전 등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들은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발생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혹자는 인간을 변화를 만들기보다는 살아남기 위해 ‘일어난 변화들에 적응하는 존재’로 묘사하기도 한다. 광복과 분단의 70년을 살아온 2015년의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해결해야 할 수 많은 과제들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를 해결할 리더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일까. 93년의 역사를 통해 사회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도와 실천으로 세상을 이끌어온 한국YWCA는 변화가 만들어낸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연대 활동의 중심에서 ‘한반도 평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소망을 대신하여 평화의 메시지를 평화로운 방식으로 평화롭게 나누고자 했던 Women Cross DMZ 평화순례길’, 고리1호기 폐쇄라는 1단계 성과로 이어진 ‘매주 화요일 탈핵 불의날 캠페인’으로 인해 전국의 52개 회원YWCA는 하나님 비전 안의 Y임을 재차 확인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100주년을 향한 사명 완수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그러나 남북이 하나되는 평화의 한반도와 정의로운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난제는 여전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고 지혜와 용기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 소리만이 가득히 울려 퍼진다.

지나간 일을 들먹이며 ‘그것만 아니었더라면...’을 외치는 국회의원을 보면서, ‘정치영역의 여성의 저대

표성’을 문제해결의 책임을 지닌 권한자의 몫이 아닌 여성의 책임으로 몰아붙이는 무능한 정치인을 보면서 더 이상 기다리서는 안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하게 된다. 한국사회가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인 부분이 항존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여성을 대상으로 전락시켜 객체화’하는 권력을 가진 자들의 무지함일 것이다. 이 무지함은 여성참여율 세계 111위, 남녀성격차지수 117위의 현실로 연결되어 있고, 이와 같은 야만적인 상황 속에서 전쟁의 피해자였던 여성들이 이제는 평화를 만드는 과정에 좀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진정성이 결여된 제안은 공허함 그 자체이다.

올해는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UNSCR 1325)가 채택된 지 15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한국YWCA는 2012년부터 유엔안보리 1325 국가행동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분쟁과 분단의 피해자인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온전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WCD에서도 갈등예방과 해결, 평화 구축과정에서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요구한 바 있다. 전쟁으로 인한 여성과 아이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누구를 위한 희생인지도 모를 핵 발전을 막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과정에 참여하자. 과다대표된 남성들이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큰 목소리를 만들어 외쳐보자.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유권자이자 납세자이자 주권자인 여성들의 참여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참여하자. 

사막의 소리

글 | 이세형 목사 (협성대학교 신학과 교수)

마태복음 3장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2011년 1월, 열흘 동안 이집트를 여행한 적이 있다. 여행 셋째 날, 일행은 새벽 일찍 카이로를 출발해 바하이라 사막으로 갔다. 저녁이 깊어 텐트를 나와 사막에서 조용히 묵상에 빠져 들었다. 그리고 찬찬히 내면에서 들려오는 물음을 듣고 있었다. ‘모세는 왜 광야로 나아가야 했는가? 세례 요한은 왜 광야의 외치는 소리가 되었는가? 예수는 어찌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로 인도되었는가? 사도 바울이 회심을 경험한 후 아라비아 사막으로 간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광야는 일 년에 30밀리미터 이하로 비가 오는 곳이고 사막은 일 년 강우량이 3밀리미터 이하이다. 사막과 광야는 물과 비가 없는 곳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막은 물만 없는 곳이 아니라, 인공의 불빛과 사람이 없는 곳이다. 시간이 멈춘 곳이고 소리가 사라진 곳이다. 사막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이다.


그런데 그곳에서 비로소 소리를 보고, 빛을 보고, 물을 보며, 사람을 보고, 바람을 볼 수 있게 된다. 사막은 말하는 곳이 아니라 듣는 곳이고, 듣되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는 곳이다.

궁궐을 뒤로 하고 문화와 문명을 뒤로하고 편안한 침대를 뒤로 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광야로

나간 것이다. 선지자들이, 우리 주님이, 사도바울과 영성가들이, 이 땅의 선지자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그분의 소리를 듣기 위해 사막과 광야와 들과 산으로 나아갔다. 마태는 선지자 세례 요한에 대해 이사야의 예언을 빌려 말하기를 이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다.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아가 자신 안에 있는 소리를 보았다. 자신의 존재가 소리고 소리가 자신의 존재임을 보았다.

이처럼 주님은 부르심을 받은 종들을 광야로 부르신다. 왜 광야인가? 광야는 들음이고, 내려감이며, 빈 공간이고, 죽음이다. 광야는 인간의 소리가 멈추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곳이다. 광야는 꼭 광야일 필요는 없다. 우리가 진정으로 들을 수 있는 곳이 우리의 광야이다. 우리는 광야로 나아오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주님은 우리를 광야로, 사막으로 부르신다. 광야로의 초대는 우리로 하여금 빈 그릇, 빈 방이 되라는 초대이다. 우리가 비워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채우면 될 것처럼 자꾸 채우려 한다. 그러나 비워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비우고 완성하고, 비우고 완성하고, 비우고 완성하는 것이다.

YWCA가 한국의 광야의 외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들음과 내려감과 비움과 죽음으로 살아내기를 바란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현존이 이 땅에 주님의 소리 되어 평화와 생명과 정의와 통일의 세계를 이루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9월의 한국YWCA

글 | 유성희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올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습니다. 더위만큼이나 광복 70주년의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여름에 우리는 광복 70년의 기쁨보다 분단 70년의 아픔을 뼈저리게 만나야 했습니다. 남북간 긴장상태가 '전쟁'의 위협으로 다가오면서, 평화와 통일의 희망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단 70년의 아픔과 절망을 넘어 평화의 한반도를 염원하며 한국YWCA는 평화기도회와 평화운동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올바른 '기억'을 통해 '희망'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93년간 하나님께서 YWCA를 통해 주신 평화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평화의 실천자로, 평화운동체로 YWCA가 지금,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을 앞으로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한국YWCA가 자유, 화합, 연대의 가치를 상징하는 '평화기'를 받았습니다. '평화기'는 1897년 코라 디 브라자 백작부인이 평화운동을 기념하여 제작한 것으로, 평화기 수여 위원들이 세계 각지의 평화운동 현장을 찾아기를 직접 전달하고 평화운동의 역사를 이어가는 또 하나의 평화운동입니다. 한국YWCA가 평화기를 받게 된 것은 '2015 국제여성평화결기 WCD(Women Cross DMZ)'를 통해 여성평화운동과 19세기 여성들이 주도한 평화운동의 역사를 계승하고 있다고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평화기의 전달이 평화운동의 역사를 이어가고 조화로운 미래가 되기를 염원하는 평화운동가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어져 왔다는 설명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는 평화를 위해 일한다'는 Y 회원들의 기도와 결단이 앞으로도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현장에

서 평화운동을 이어온 활동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한국YWCA의 탈핵운동은 생명평화세상을 위한 작은 노력입니다. 메르스 등으로 외부와 지역의 참여가 어려웠지만, 8월 말부터 '탈핵 불의날 캠페인'에 다시 지역의 참여가 시작되었습니다.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과 NCKK 여성위원회의 등 외부에서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탈핵 캠페인은 지역자립의 에너지 정책,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수립을 요구하며, 월성 노후원전의 가동 중단과 신규원전 확대를 반대하는 서명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탈핵 캠페이너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드리며, 매주 화요일 쉽없이 계속되는 탈핵 캠페인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YWCA 청년 인터넷방송국인 YWBS 10기의 방송이 8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아나운서와 PD를 지망하여 이번에는 5:1이 넘는 지원율을 보였고, 고정 시청자의 사업 후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한 활동 공유도 진행하고 있고, YWCA가 공유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참여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과 YWCA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페이스북(<http://facebook.com/ywcakorea>) 친구로 등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탈핵 캠프가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저도 캠프에 함께 참여하면서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미래를 '희망'으로 전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간절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화의 기도로 시작된 9월입니다. 평화의 세상을 꿈꾸며 평화의 행진을 힘차게 이어가는 한국YWCA가 되도록 더 많이 후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YWCA 평화운동,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

- ① 평화에 대한 성서적, 여성적 이해 | 최만자
- ② 여성주의 평화운동 지형에서 본 YWCA 평화운동 | 김엘리
- ③ 통일은 치유다 | 전우택

평화에 대한 성서적, 여성적 이해

2015년 한국YWCA연합회 북한어린이돕기사업단은 평화통일 운동을 준비하기 위한 대북지원연구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15일(수) 연합회에서 열린 제 3차 대북 지원연구모임의 발제를 통해 기독교 여성 평화통일운동의 과제를 생각해본다.

글 | 최만자 (한국YWCA연합회 Y카카데미위원회 위원)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할 만큼 많은 전쟁을 겪어오면서 그 한편으론 그만큼 평화 사상이 발전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의 평화사상은 분단 이후 ‘평화 통일’이라는 지향을 늘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북의 극단적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남한에서 평화 통일을 논의할 수 있었던 것이 1989년 동구권 몰락 이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해외 동포들과 WCC(세계 교회협의회)의 노력과 지원으로 한국 기독교계 안에 평화 통일 운동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YWCA는 평화 통일 운동의 흐름을 함께 하며 그 운동을 발전, 확장해 나갔다.

한국YWCA 평화 통일 운동이 기독교적(성서적), 모성적(여성주의적) 운동이라고 그 특성을 정의할 수 있다면 기독교적, 모성적 평화 이해는 어떤 것일까?

평화에 대한 성서적 의미

성서의 평화는 주로 ‘샬롬’이란 표현으로 설명된다. 이 샬롬은 ‘완전하게 하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방식’을 드러내는 단어이다. 평화를 총체적 관계 속에서 이해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하는 일마다 잘 되는”(시 1:3) 생명력이 풍부한 삶, 인간 삶에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는 상태를 ‘평화’라 한다. 이것은 자연히 ‘공동체적 삶’을 기조로 하는데, 달리 말해 공동체 안에서 누구라도 평화롭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평화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는 곧 ‘정의가 이루어진 사회’, ‘정의가 이루어진 상태’라야 평화의 세상이요 상태라는 것이다.

그래서 평화는 정의와 ‘짝’을 이루고 정의 없는 평화는 불가능하다고 성서는 말한다. 그러므로 YWCA 평화통일 운동이 ‘기독교적’이라 할 때 이러한 ‘정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상태’를 근원으로 하였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성서적 평화에 대한 대표적 비전은 이사야 11장 3절부터 9절의 내용이라 생각된다. 어린 아기가 독사의 입에 손을 넣어도 상함 받지 않고, 사자가 염소와 함께 풀을 뜯는 세상을 이사야는

평화의 세상이라 노래한다. 이는 비록 실현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모든 강한 자와 약한 자, 권력을 가진 기독교 권자와 힘없는 자들이 공존하는 이상을 제시하고 그것을 지향하도록 촉구한다.

또 신약성서 에베소서 2~3장에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대립적이고 갈등관계에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등 상황에서 이루어 나가는 평화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유대인,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 안에 들어와 있다는 혁명적인 통일 사상을 선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안에서 두 집단이 하나로 되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평화사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신약성서 마태복음의 메시지는 깊은 갈등관계에 있는 상황을 극복하는 메시지를 준다.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함을 향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임을 가르쳤는데 사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얼마나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 깊이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성서 말씀이다. 6·25 노래에도 나타나듯 그동안 얼마나 남북이 증오의 대상, 적개심을 갖게 하는 원수로 규정해 왔는가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할 과제를 갖고 있다.

평화에 대한 모성적(여성주의적) 이해,


그리고 YWCA의 과제

YWCA의 평화통일운동이 ‘모성적’이라는 특성으로 평가될 내용들이 많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여성 평화운동은 여성의 본능적 모성의 발로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성 역할 고정관념에 근거해 있는 경우가 많다. 또 한편으로는 여성이 분단으로 인해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라는 ‘희생자적’ 관점으로 통일 문제에 접근하고 평화의 방향성을 거기서 찾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모성적, 희생자적 관점을 넘어서 여성주의 원리에 의해 ‘새로운 세상의 비전을

제시하는’ 여성권리와 여성능력에 의한 여성 평화운동이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다. 다분히 모성적이고 단순 대북 지원을 했던 YWCA의 평화통일 운동이 더 깊고 폭넓은 여성주의적 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나는 1992년 YWCA 평화통일위원회가 처음 조직되었을 때 초대 위원장직을 맡아 1994년 인간띠잇기 행사도 이끌었던 기억이 난다. 1992년 11월 처음으로 남북여성들이 함께 모였던 ‘아시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 모임에도 참여하면서 당시에 갈급했던 북한과의 교류와 남북 화합에 여성들이 참여하면서 여성들이 기여할 가능성과 희망을 갖기로 했다. 그러나 그 모임은 3년 이상 지속되지 못했고 동구권 붕괴의 영향으로 남북관계의 끈을 이은 것은 대북지원 활동이었다.

교회여성들이 이 활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섰고 YWCA도 쌀보내기, 분유보내기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보수적 교회들이 WCC 등 진보적 평화운동을 반공 이데올로기의 잣대로 비난하고 적개심을 일으키는 등 어려움이 늘 따랐다. 이 반공 이데올로기 극복이 한국 기독교의 최우선 통일운동 과제라고 생각한다.

한국교회가 자선적 대북지원은 잘 해나가고 있지만 다른 한편 북에 대해 깊이 내면화된 적개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다. 우리의 한편은 이렇게 북한을 증오하지만 또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을 사랑하고 그들과 공존해 나갈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등 교계 내에서도 반대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이 심화되고, 서로의 이념 대결로 편견을 갖는 상황에 대한 극복 방안을 고민하는 것 역시 앞으로의 평화통일 운동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주의 평화운동 지형에서 본 YWCA 평화운동

YWCA 활동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Y의 '평화'운동이 어떤 운동의 맥락에서 전개되었는지 이 글을 통해 분석해본다. 그리고 이러한 Y의 평화운동은 여성주의 평화운동을 지향하려했던 한국여성들의 평화운동의 지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짚어본다.¹⁾

글 | 김엘리 (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YWCA는 평화를 만드는 힘입니다.’ 이 슬로건은 2000년 YWCA 전국대회에 등장한 YWCA의 평화운동의 선언이자 주제이다. 지난 93년 동안 펼쳐진 YWCA의 활동은 말 그대로 지속성과 다양성으로 집약할 수 있다. 개인과 가정의 먹거리나 쓰레기 문제에서부터 민족통일과 세계평화까지 매우 다양하고 글로벌(global)한 실천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그 가운데 ‘평화’이슈는 그 언어와 의미를 달리하며 지속적으로 YWCA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였다.

여성들이 하는 여성주의 평화운동

여성주의 평화운동이란 여성주의를 지향하는 혹은 여성주의 관점으로 하는 평화운동을 말한다. 여기서 여성주의로 평화운동을 한다는 것은 여성들이 평화(통일)운동에 참여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넘어서 평화(통일) 이슈가 구조적으로 성별화(젠더화)돼 있거나 성차별주의와 결합돼 있는 현실을 인지하고 이를 변화시키려는 실천들을 뜻한다. 이러한 접근은 평화(통일) 관련 분야가 남성중심의 젠더화된 사회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이 체계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평화(통일) 사회

가 자동적으로 성취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전제한다.

여성주의에 대한 감수성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여성들의 참여와 개입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참여하고 개입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성주의 평화운동의 주체는 여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남성, 여성, 트랜스젠더 등 성별을 넘어선다. 누구든지 여성주의 평화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보다 요청되는 것은 여성주의를 자신의 삶의 전망이나 행위의 근거로 삼는 일이다. 벨 훅스(Bell Hooks)가 말한대로 “페미니즘은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변혁시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다. 사회를 변화시키고 살리겠다는 YWCA 기독교여성들의 운동 목표는 그러한 점에서 여성주의와 맞닿아있다. 그러나 좀 더 섬세한 논의를 요한다.

YWCA 평화운동과 ‘여성의 역할’

YWCA는 기독교여성의 평화운동이라는 점에서 기독교인과 여성이라는 두 측면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평화운동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에서 나온다면, ‘여성’은 운동주체의 정체성을 만드는데 또 다른 주요한 요소이다. Y의 평화운동을 전반적으로 훑어보



면, 여성의 참여와 역할에 치중돼 있음을 볼 수 있다.

Y의 평화운동은 여성주체를 내세워서 여성이 새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슬로건은 여성의 힘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좀 더 나가서 여성주체가 여성주의 주체가 되는 급진성을 가지고, 여성이 세상을 만든다고 했을 때 YWCA는 그 ‘여성’을 어떤 여성으로 표방할지 정교한 논의와 담론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테면 1990년대 기독교여성들은 모성과 생명, 살림, 돌봄의 가치를 평화운동과 연결시켜, 모성과 평화성의 연계성을 이론화하고 평화운동의 파워를 생성하려 했다. YWCA의 평화 구호를 살펴보면 ‘생명을 창출하는 모성...’(1996), ‘어머니의 마음을 북한 어린이에게’(1997) 등, 일관되거나 직접적이지 않아도 1990년대의 YWCA 여성들의 평화활동은 어머니의 심정을 전제하거나 때로 가끔씩 표출한다.


그러나 남성중심성을 변화시키려는 여성주의 접근이 약하면, 어머니로 정체화하는 여성들의 참여와 역할은 남성중심적 체계에 간혀서 의도하지 않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더욱이 여성의 ‘역할’ 강조는 젠더 체계의 틀에서 거론되는 경우가 꽤 많았던 현실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하므로 여성의 역할 강조는 기존의 성역할로 환원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여기서 여성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과의 관계에서 존재 의미를 구성하는 어머니, 딸, 아내로 규정되어 매우 균질적이고 집단적인 정체성을 지닌다. 물론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지만, 여성들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한다는 현실도 감안한다

면 여성들의 다양하고 자기다운 혹은 급진적인 정체성을 평화이슈와 관련하여 만들어낼 수도 있다.

여성주의 입장에서 평화운동을 접근하면, 매우 다른 세계를 창조하는 여성들의 실천을 생성할 수 있다. 여성의 역할과 관련하여 한 예를 말하고자 한다.²⁾ 한국여성들이 전개한 평화운동은 필자가 보기에,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에 대한 공감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1980년대 여성들이 전개한 반핵운동은 반제통일 이념의 논쟁 속에서 이념이 아닌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면서 시작됐다. 고통에 대한 공감은 이후 인권의 언어로 설명되고 평화의 시각으로 확장됐다. 1990년대 한미소파개정운동이 민족주의에 기반한 반미운동으로 향할 때도 여성들은 사람들의 고통을 인권문제로서 평화운동을 펼쳤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그 삶, 그리고 그 사람이 겪는 죽음과 고통의 문제를 보았다.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일은 마치 여성의 역할이나 여성적인 행위로 취급됐다. 그러나 여성들의 평화운동에서 고통과 슬픔에 대한 공감은 여성의 역할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과 연대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합리적으로 반응하고 행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인지하고 이해해야 하며, 이해를 한다는 것은 감정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합리적 실천은 몸으로 고통을 느끼고 공감하는 감정의 움직임에서 시작한다. 이 체현된 합리성은 정신과 육체를 나누고 이성과 감정을 나누며 남성과 여성을 차별적으로 이원화하는 체계에서 설명할 수 없는 행위이다. 수전 손택(Susan Sontag)의 말을 빌리면, 이는 단순히 연민이 아닌, 이 고통의 원인에 ‘내가 연루되어 있다는 속고이다. 그래서 여성들의 평화정치학은 이원화 체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실천인 것이다. 

1) 이 원고는 2015년 8월 12일(수) 연합회에서 열린 2015 YWCA 평화운동세미나의 발제를 요약, 발췌하여 실었습니다.(편집실 주)

2) 김엘리(2015), “평화여성주의, 일상에서 평화를,” 『나의 페미니즘 레시피』, 장필화 외 지음, 서울: 서해문집, 312-313.

통일은 치유다

-분단과 통일에 대한 정신의학적 고찰

세계에서 현존하는 유일한 분단국가 대한민국. 분단 이후 한국사회 내 크고 작은 사건들은 개인적인 아픔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트라우마를 만들었다. 이를 '사회적 트라우마'로 규정하고 평화통일을 치유의 과정으로 소개하는 글을 만나본다.¹⁾

글 | 전우택 (연세대학교 교수, 한반도평화연구원 원장)



사회적 트라우마로서의 분단

위안부로 상징되는 일제 식민 시대, 제주 4.3으로 상징되는 건국 전후의 극심한 이념갈등,

한국전쟁과 그 이후의 극단적 냉전대결, 1970년 전태일의 분신으로 상징되는 산업화와 광주 5·18로 상징되는 민주화의 갈등 등 한국인들은 현대사 속에서 끊임 없이 발생하는 엄청난 '사회적 트라우마'를 겪어 왔다. 그리고 발생한 사회적 트라우마가 미처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사회적 트라우마가 발생하여 중첩되면서, 한국인은 개인 및 집단의 정신 속에 그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아왔다.

이러한 현대사의 사건들과 사회적 트라우마는 그 다양한 원인들이 분단으로 모아졌고, 다시 분단으로부터 빠져 나가는 양상을 가진다. 수 천 년을 공동의 언어, 문화, 역사를 가지고 살아왔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들만을 예외로 하고는 단일 국가 체제하에서 살아왔던 우리 민족이었기에, 민족의 다수가 바랐던 것도 아닌, 외부 세력에 의한 강제적 분단과 그 이후 있었던 6·25라는 최악의 비극은 비교할 대상이 없을 만큼의 거대한 사회적 트라우마가 되었다.

분단 치유를 위한 미래 과제

그 동안 한국 사회는 분단에 의한 사회적 트라우마에 대하여 나름대로 그 치유를 위하여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사회는 분단에 의한 사회적 트라우마와 그로 인한 결과에서 충분히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을 너무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 우리 사회는 어떤 치유적 활동을 더 하여야 하는 것일까?

첫째, 사회적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를 위한 해외 사례 분석이 있어야 한다. 분단은 아니지만, 거대한 사회적 트라우마를 겪고, 그것을 치유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해외 사례들을 분석하는 것은 향후 한반도의 분단에 의한 상처를 치유하는 데 중요한 점들을

시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아일랜드의 신교도, 구교도 간의 폭력적 갈등과 평화협정,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과 진실과 화해위원회,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아르헨티나의 군사독재 기간의 소위 '더러운 전쟁'(dirty war),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와의 갈등에 의한 상처, 르완다의 투치족과 후치족 사이의 내전과 대량 살육 및 그 이후의 화해 등은 모두 사회적 트라우마와 그 치유에 있어 본질적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해 할지 풍부한 자료를 주는 사례들이다. 또한 동서독으로 분단되었다가 통일 이후 통일에 의한 사회적 충격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 독일의 사례도 분단과 통일에 의한 사회적 트라우마 치유 연구를 위해 중요한 해외 사례이다.

둘째, 대상집단별 상처와 치유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치유대상이 되는 각 집단별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 치유 정도와 치유의 필요 내용들을 분석하고, 개인치유와 사회적 대응,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다른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분단으로 붕괴된 민족, 공간, 이성 공동체를 복구하여야 한다. 먼저 '공간공동체'의 복구란 같은 공간, 같은 지역사회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념, 경제 수준, 종교, 사회계층 등의 차이를 넘어서서, 서로를 의미 있는 인간으로 인정하고 함께 같은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와 경험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연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공간공동체의 복원은 이성공동체의 복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자신과 이념, 경제적 수준, 종교, 사회계층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의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이해하고, 존중하며, 타협이나 공동의 합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있어야만, 공간공동체가 만들어져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분단 과정과 6·25 과정에서도 많은 고통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북한의 독재 정권에 의해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 사람들에 대한 개인치유와 사회적 대응,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더 높은 차원의 치유적 활동들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한 사람들에 대한 치유적 활동 경험과 그 축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을 토대로 북한 사람들에 대한 치유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통하여 비로소 민족 공동체는 복원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람의 통일'이고 '통일'이다.

한반도에서 발생한 분단이라는 상처의 해결과 극복을 위한 노력들은 작게는 한반도의 문제이지만, 이것은 인류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 통일은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분단되고 대립하고 있는 사회의 통합인 동시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 격차를 가지고 있는 두 개 사회의 통합을 보여주는 거대한 사회적 실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분단은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회적 트라우마이다. 그러나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들 이제는 넘어서야 한다. 우리가 원하였던 분단은 아니었어도, 분단에 의하여 민족공동체, 공간공동체, 이성공동체가 붕괴된 한국 사회 속에서, 이것을 다시 복원하고, 붕괴 이전보다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분단을 통하여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 민족은 인류의 정신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게 되었다. 그러한 시각과 의미 부여를 가지고 '치유로서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통일은 비로소 성공적이고도 의미 있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기에 "통일은 치유다". 

1) 본 글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공식 학술지 「신경정신의학」 2015년 54권 3호에 실린 전우택 교수의 논문을 요약, 발췌했습니다. 지난 8월 18일(화) 열린 한국YWCA 제2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여 실었습니다. (편집실 주)

평화를 위한 YWCA 공동 기도문

하나님, 어려움을 극복하고 광복 70주년을 맞는 기쁨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분단 70년으로 남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사, 허리가 잘려 신음하고 있는 이 땅, 한반도를 바로 보게 하소서! 분단의 깊은 상처로 탄식하며 반목과 갈등, 다툼과 분열로 인해 흘리는 아픈 눈물을 닦아주소서.

막힌 담을 모두 열어 주시는 주님, 이 땅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공의와 인애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하나되게 하소서! 전쟁으로 원수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화해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아직도 이 땅은 '정전협정', 전쟁 중입니다. '평화협정'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 나가게 하소서.

북한이탈주민들을 품으며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소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반도의 치유와 평화통일을 허락해 주소서.

평화통일을 위한 통찰과 지혜를 주셔서 해일처럼 다가오는 통일에 대해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소서. 남북한의 활발하고 신실한 교류를 통해 통일 세대가 자라나고 통일한국의 디딤돌이 되게 하소서. 평화통일에 힘쓰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분단의 아픔을 잘 모르는 남북의 젊은 세대들도 함께 평화통일을 꿈꾸게 하소서. 모든 세대가 분단의 비극을 이해하고 평화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오직 은혜와 믿음의 개혁정신으로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신뢰와 화해를 위한 모든 노력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한반도가 세계 평화를 위한 기초요, 하나님의 긍휼의 공간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한반도 평화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과 이 민족이 하나되어 협력함으로 세상에 선을 이루는 민족 되게 하소서.

주님, YWCA가 평화통일을 위해 진정성 있는 책임의식을 갖고 씩어지는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소서! 한반도에 평화의 물줄기를 터주시고, 통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모든 이들이 한마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평화의 하나님이 한반도 땅위에 동일하게 임하소서. 평화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이 기도문은 2015년 7-8월중 7개 회원YWCA, 6개 부속시설, 개인회원이 보내주신 70여 개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YWCA회원들의 한 문장 기도'를 모아 만들었습니다.
대구YWCA, 부천YWCA, 서울YWCA(본부, 가락종합사회복지관, 강남청소년수련관,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봉천종합사회복지관, 성동청소년문화의집,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안양YWCA, 익산YWCA, 창원YWCA, 춘천YWCA, 고미숙, 구정혜, 김성민, 박성희, 신선, 이수량, 이주영, 이한호, 진소정

일본의 침략전쟁과 일본군 성노예 역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촉구하는 한국YWCA 입장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를 규탄한다

2015년 8월 14일 일본 아베신조 총리는 전후 70년 담화를 발표하였다. 지난 일제 식민지 지배와 태평양전쟁의 상흔을 가진 아시아 각국들과 이를 기억하는 전 세계 사람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일본이 동아시아 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 어떤 의지와 책임을 표명하고 있는지 지켜보았다.

한국YWCA는 아베 신조 총리가 발표한 전후 70년 담화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일본 정부가 과연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베 담화가 제대로 된 반성과 사죄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한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음을 규탄한다.

첫째, “전후 70년을 맞아 국내외에서 숨진 모든 사람들의 목숨 앞에, 깊이 머리를 숙이고... 애절한 마음을 진심으로 바칩니다”라는 표현은, 전쟁피해자에 대한 애도라기보다 전쟁 가해 책임을 피해의 역사로 무화시키는 것이다. 진정한 애도는 가해 책임을 인정하고 가슴 깊이 사죄하는 자세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이 표현은 전쟁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애도를 담지 않고 있다.

둘째, 아베신조 총리는 “과거 일본 정부들이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표명해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반성과 사죄를 과거형으로만 표현하여 일본 내각의 현재 수장으로 서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반성과 사죄를 하지 않고 있다.

셋째, 일본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와 세계 곳곳의 일본군 침략 국가에서 자행했던 위안부-일본군 성노예 역사에 대해 “수많은 여성들의 존엄과 명예가 깊은 상처를 입었던 과거를 가슴에 새기겠다”고 표현하였지만, 아베총리는 일관되게 일본의 책임을 과거의 문제로 규정하였으며, 일본군 성노예에 대하여 그 어떤 구체적인 반성과 사죄 행위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넷째, “사변, 침략, 전쟁, 어떤 무력행사도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두 번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

였지만, 실제로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명분으로 안보법을 만들면서 ‘전쟁 가능한 나라’를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침략사에 대한 반성과 평화구현의 의지가 있는지 진정성을 더욱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섯째, “이제 일본도 전후 태어난 세대가 전체 인구의 8할을 넘고 있다. 과거 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리의 아들이나 손자,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도 사죄의 숙명을 짊어지게 해는 안 된다”라고 하였지만, 현세대가 미래세대에게 과거의 침략전쟁에 대해 어떤 교훈을 남기겠다는 것인지, 어떤 책임과 반성의 과정을 통해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는 반성과 사죄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회피하겠다는 표현일 뿐이다.

우리는 아베총리의 전후 70년 담화가 ‘모든 이의 희생’으로 가해 책임을 무화하면서,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며,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를 하지 않은 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의무’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집단지위권’을 내세워 ‘전쟁 가능한 나라’를 만들려는 것임을 규탄한다.

이에 한국YWCA는 일본 정부가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 그리고 일본군 성노예 제도를 통해 아시아 여러 국가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폭력을 가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정부차원의 사과와 배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일본 평화헌법 9조의 정신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한국YWCA는, 동북아의 평화는 물론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 다시는 침략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역사의 진실을 알리기를 일본 정부에 요구한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와 행동, 그리고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의 모습을 보여줄 때, 일본 정부는 진정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평화롭고 미래지향적인 세계를 만드는 데 중대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9월 3일
한국YWCA연합회

* 2015년 8월 14일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전후 70년 담화에 대하여 반성과 사죄를 촉구하는 한국YWCA 입장을 밝히고, 평화헌법 9조를 지키기 위해 애쓴 일본YWCA의 지지를 얻어 일본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 김마리아 선생

일제하 35년 어둠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희망을 비추어 준 것은 국내외 항일 구국 지도자들의 독립운동과 독립정신이었다. 우리 역사에는 가슴 뭉클하게 하는 훌륭한 역사적 인물들이 적지 않으나, 그 중 일제 탄압에 끊임없이 저항하며 조국 독립을 위해 50여 평생을 바친 김마리아 선생의 위대한 생애는 우리가 수없이 반추하며 우리 미래의 길을 밝혀주는 표상으로 삼아야 한다.



글 | 박용옥 (한국YWCA연합회 위원)

1930년대 일제의 식민 통치하에서 많은 지식인들은 일제의 협박과 회유에 굴복하였으나 김마리아 선생만은 변함없는 깨끗한 구국정신력을 견지하며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주었다.

김마리아 선생은 1892년 음력 6월 18일, 황해도 장연의 아름다운 소래 마을에서 만석군인 아버지 김윤방과 어머니 김몽은의 막내인 셋째 딸로 태어났다. 소래 마을은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우리의 손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자력으로 교회와 학교를 세운 한국 기독교 문명의 발상지이다. 소래 마을의 유지인 선생의 가족들도 모두 기독교를 신앙하였고 새 시대가 필요로 하는 새 문명을 받아들였다. 김마리아 세 살 때 아버지가, 또한 열네 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선생은 이처럼 조실부모의 불행을 당했으나 진취적인 정신력으로 신앙과 학업에 매진하여 고모들과 언니들을 오히려 감화시키는 총명함이 있었다. 그는 숙부들(김윤오와 김필순)의 주선으로 15세인 1906년에 서울로 와서 고모들과 언니들이 다니는 정신여학교를 다녔으며, 1910년 졸업 후 광주(수피아여학교)와 모교에서 교편생활을 하며 후학들에게 시시때때로 민족정신을 고취하였다.

실력양성을 독립운동의 중요 방략으로 삼은 선생은 현대적인 새 지식을 더 습득하고자 일본 동경여자학원 대학과에 유학(1915~19)하였는데, 졸업을 앞둔 1919년 2월 8일, 동경유학생들의 2·8독립운동에 참가하고, 곧 이어 일본여인으로 변장하고 독립선언서를 몸에 감추고 동경유학생계의 대표로서 국내에 잠입하여 천도교계의 유지인 이종일 등을 찾아 독립정신의 행동화를 진작하였다.

선생은 3·1운동이 일어나자 박인덕, 황에스터, 나혜석 등과 이화학당 출신 인재들을 중심으로 항일여성단체를 조직하여 여성들도 남자들과 평등한 국민으로서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활동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선생의 귀국활동을 눈치 채고 줄곧 그의 뒤를 쫓던 일경에게 3월 6일 정신여학교에서 체포되어 왜성대로 불리는 경무청으로 압송되어 심한 고문을 받고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서대문감옥에 수감되었다가 7월 26일 출소하고 8월 4일 면소처분을 받았다.

선생은 왜성대에서 머리를 심하게 맞는 고문으로 인해 코와 귀에 고름이 고이는 불치병에 걸렸다. 그러나 그는 독립운동을 포기하지 않았다. 선생은 동년 10월

19일 다시 동지들을 규합하여 ‘대한민국애국부인회’를 조직하여 회장에 추대되었다. 불과 2개월이 채 못되어 합 6천 원이란 거금의 군자금을 거두어 상해임시정부에 송금하는 대활약을 하였다. 그러나 배신 회원의 밀고로 활동 전모가 발각되어 11월 말경 선생을 비롯한 대한민국애국부인회 관련인들이 경복경찰부 제3부에 의하여 모조리 검거되었다.

선생은 경찰의 악랄한 고문과 검사의 모욕적 심문에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 검사의 서릿발같은 심문에도 다음과 같이 당당하게 답변하였다.

“한국사람으로 한국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남자와 마찬가지로 여자도 활동하는 것이 당연하다”

“나는 서기만 알 뿐이오 일본 연호는 모른다”

선생은 5년 구형에 3년 연도를 받았다. 심한 고문으로 대구 감방에서 사경을 헤맨 선생은 1920년 5월 22일 주변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병보석 출옥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병보석 1년 여가 되는 1921년 7월 일제 사찰의 눈을 따돌리고 인천을 떠나 중국 위해위를 거쳐 상해로 망명하는 데 성공하였다. 선생은 반년에 가까운 요양으로 건강이 회복되자 남경의 금릉(金陵)대학에 들어가 중국어를 배우는 등 학업에 정진하였다. 선생의 독립 방략론은 ‘실력 양성과 경제 진흥’이었다. 선생은 1923년 1월 31일 개최된 국민대표회의에 참석하여 분열 갈등하는 독립운동계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임시정부를 지지하고 이를 중심으로 단결하여야 함을 호소하였으나 이 회의는 결렬되고 말았다.


선생은 실력 양성을 위해 유학차 1923년 6월 상해를 떠나 7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당도하여 교민사회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선생은 교민들에게 3·1운동과 국민대표회의가 뜻처럼 성취되지는 않았으나, 이 모두가 독립을 향해 가는 과정들이므로 실망치 말고 맡은 바

일에 충실하는 것이 실력을 양성하는 독립의 길이라고 설파하며 교포들에게 새 날의 희망을 갖게 하였다.

선생은 1924년 9월 미조리주의 팍(Park)대학 3학년에 입학하여 2년간 수학하고, 졸업 후 시카고대학 대학원(연구생)을 거쳐 뉴욕 콜럼비아대학사범대학 대학원에서 1929년에 교육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다시 뉴욕신학원에 입학하여 종교교육학을 공부하였다. 선생은 팍대학을 졸업한 후부터는 조국 독립을 위한 각종 집회와 조직에 참여, 적극적인 지도적 활동을 하였다. 그는 ‘단합하기 공부’와 ‘모세와 같은 민족지도자 육성론’을 설파하여 교포 사회를 진작시켰다.

독립을 지향하는 선생의 정신력에는 실로 진취적이고도 창조적인 무서운 힘이 있었다. 선생은 뉴욕 도착 후 뜻밖에 옛 동지들(황에스터, 박인덕, 이선행 등)을 만나자 그들을 규합하여 1928년 1월 1일 항일여성단체인 ‘근화회(槿花會)’를 조직하여 교포계를 감동하게 하였다.

선생은 12년의 망명생활을 마치고 1932년 7월에 귀국하였다. 선생은 귀국 후 원산의 마르다윌슨여자신학교 교수로서 주로 성경을 가르치는 등 종교활동만이 허락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새 하늘 새 땅을 제시해주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조국 독립의 비전을 제시해 주었다.

1930년대 이후 지식인들이 친일 행각을 할 때, 선생은 독립을 향한 불굴의 정신력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여 민족지도자로서의 지조를 견지하였다. 선생의 삶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의지와 정신력으로 자신의 민족을 위기로부터 구원한 구약 시대 에스더의 삶 그 자체였다. 광복 1년 여를 남겨놓은 1944년 3월 13일 선생은 고문 후유증이 심하여져 마침내 영면하였다. 선생은 1962년에 국가로부터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장을 서훈받았다. 

청년, 평화통일을 그리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7월의 끝자락, 30일과 31일, 서울YWCA는 뜨거운 여름 태양 아래 24명의 청년들과 평화캠프를 함께 했다. 강원도 철원 '국경선 평화학교'에서 열린 서울Y 청년·대학생 평화리더십캠프! 특별히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만큼 서울Y는 후원을 통해 마련된 청년기금을 지원, 평화통일세대를 열어갈 청년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이번 캠프를 열었다.



철원의 '국경선 평화학교'로 가는 길은 새로운 경험이자 도전이었다. 국경선 평화학교는 민통선 안에 위치한 곳으로, 엄격한 출입 허가 절차를 거쳐서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장소에서의 캠프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고 다시금 분단의 현실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국경선 평화학교 대표인 정지석 박사의 특강 '피스메이커, 평화는 실천이다'는 평화통일을 이끄는 청년리더로서 가져야 할 소명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로, 청년들 모두 평화에 대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었다.

특강 이후 비무장지대(DMZ)를 둘러보며 가깝지만 먼 북한 땅을 보며 평화통일 또한 멀고도 가깝게 느껴졌다. 또한 하루 빨리 평화통일이 되어서 남북한 청년이 함께 모여 우정을 나누는 캠프도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깊어가는 밤을 벗삼아 참가한 청년들은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는 팀빌딩(Team-Building) 프로그램으로 마음을 나눴다. 북한말 퀴즈, 북한노래 쟁반노래방, 옥수수가루 떡 만들기, 분단 역사 알기 등의 평화통일 포스트 활동을 통해 북한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도 가졌다. 이 날 밤에 열린 '브레인스토밍 컨퍼런스' 시간에는 총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 열띤 토론을 통해 통일과 북한에 대한 청년들의 진지한 생각을 엿볼 수 있었다.

평화캠프 둘째 날! 이른 아침부터 상쾌한 체조로 하루를 시작한 청년 평화리더들은, 아침명상을 위해 소이산으로 향했다. 소이산 전망대에 올라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적은 리본을 달고 더 높은 정상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침묵의 기도를 드리며 열심히 오르니 어느새 정상! 더운 날씨에 지치고 힘들었지만 탁트인 정상에서 만난 백마고지를 바라보니 고됨은 싹 사라지고 만감이 교차하는 기분이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어릴 적부터 불러오던 노래, 한 소절 한 소절이 새삼 무겁게 느껴지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서울Y 조종남 회장은 "청년들이 모여 평화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캠프를 만들고 지원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서울Y의 청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피스메이커로 한발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인사말을 전하며 앞으로 청년들이 걸어갈 평화의 길을 응원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최용환 박사의 특강 '분단과 통일-한반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해 현재 남북 관계, 북한의 정치와 경제

적 상황 등의 대한 내용을 들으며 진지한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토크콘서트 시간에는 캠프의 시작부터 함께 한 탈북 청년 2명을 토크콘서트의 패널로 초청해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들었다. 또래 청년이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던 그들을 통해 북한의 실상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청년들은 강한 인상을 받았다.

끝으로 1박 2일 동안의 캠프를 돌아보며 '평화통일 골든벨' 대회를 열고, 페어웰(Farewell) 파티를 열고 골든벨 우승자, 우수단원, 우수팀을 축하하고 캠프를 마무리하는 소감문을 작성하며 1박 2일 캠프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피곤할 텐데도 평화에 대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아쉬운 마음을 달랠었던 우리의 서울Y 청년들. 이 마음, 이 열정을 간직하고 다시 만나 서울Y 평화사절단으로 활동할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한다. (글: 서울YWCA 청소년팀)

참가자소감

글 | 차승주 (서울Y 대학Y 회원)

평화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진 이 캠프를 혼자서 오기엔 조금 두려웠다. 하지만 출발할 때부터 너무 좋은 동료를 만나게 되었고 이후에 만나게 되는 모든 분들이 열정이 넘치고 도전적인 사람들이어서 더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 만남의 축복을 갖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또 감사한 것은 진짜 통일에 대해 제대로 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저 "통일 되면 좋지, 북한 사람들 힘드니까 통일되어야지."라고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실천이라고는 조금도 하지 않던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던 귀한 시간이었다. 이렇게도 비슷한 우리들이 서로에 대해 좋지 못한 인식을 가지기도 한다는 것, 저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깔려있는 우월주의랄까,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 참 부끄럽고 미안했다. 더 알려고, 더 행동하려고 노력하겠다. 순서 순서마다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 유재호 (서울Y 대학Y 회원)

이번 평화리더십 캠프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고르자면 첫 번째는 정지석 목사님의 강연이었다. 통일이 되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혼란과 경제악화 등의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있던 내게 정지석 목사님의 강연은 통일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자신의 인생에 확신을 갖는 것'이라는 부분이 기억에 남는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하는 일을 끝까지 우직하게 해내는 끈기는 꼭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다.

두 번째로는, 새터민인 설 형제의 존재이다. 1박 2일이란 짧은 시간이지만 실제로 새터민과 함께 조를 이루어 게임을 즐기고, 식사를 하고, 통일에 대해 토론을 하고, 함께 생활하는 경험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며, 이 하루로 인해 이들 북한이탈주민들의 고충을 알게 되었다. 여러모로 이번 캠프는 소중한 시간이었음에 감사드립니다.

Y-틴과 탈핵이 만나다

015년 7월 한 달 동안 전국의 Y-틴과 탈핵이 만났다. YWCA 중점운동이자 Y-틴 중점운동 주제인 탈핵을 Y-틴 눈높이로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4부 지역별 각기 다른 기획으로 Y-틴 회원대회를 열었다. 전국에서 모인 400여 명의 Y-틴들이 탈핵을 만나는 역동적인 현장을 소개한다.



광화문 광장에서 탈핵 환경 플래시몹 선보여 (7월 18일(토),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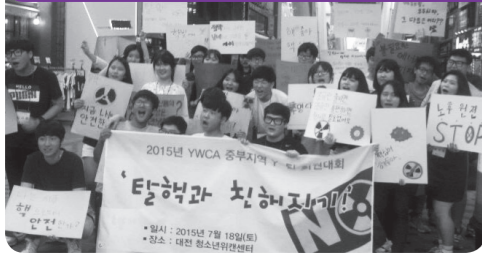


북부지역 9개 회원YWCA
(동해, 서울,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의정부, 인천, 춘천)

뽐뽐밤~♪ 뽐뽐밤~♪ 광화문광장에 많은 청소년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에어컨 끄고 모니터 끄고 절약을 즐기는 이가 챔피언”이라는 노래 가사에 맞춰서 다같이 춤을 춘다. 들썩들썩 신이 나고, 흥이 난다. 북부지역 Y-틴이 선택한 탈핵운동은 환경 플래시몹이다. 동해Y, 춘천Y의 Y-틴이 노래 개사를 하고, 안무를 짜서 9개 회원Y-틴 170

여 명이 땀흘려 연습한 플래시몹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선보였다. 열정적인 군무에 광장을 지나가거나 차에 타고 있던 시민들의 시선이 모였고, 탈핵과 에너지 절약을 외치는 Y-틴의 목소리가 널리 퍼졌다. 또한 이날 북부지역 Y-틴들은 탈핵 강의, 에너지 절약 실천공약과 슬로건, 피켓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탈핵과 에너지 절약을 필요성을 느끼며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청소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책상에서 일어날 때 전등 끄기”, “양치할 때 컵에 물 받아서 하기” 같은 일상 속 실천을 다짐했다.

선배들의 탈핵 강의, 태양광 음식물 건조기 만들기 (7월 18일(토), 대전)



중부지역 3개 회원YWCA (대전, 청주, 충주)

핵발전소? 원안위?? 피폭??? 탈핵운동을 하는 YWCA 성인 회원들은 자주 사용하지만 Y-틴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강의로도 청소년에게는 어렵게 느껴지기 일쑤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중부지역에서는 Y-틴을 위해서 대학Y 회원들이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서 탈핵 강의를 준비했다. 친근한 선배가 재미있게 들려주는 탈핵 강의는 확실히 이해도와 흥미가 높았다. 듣고 배웠으니 그 후에는 직접 만들기 팀을 이뤄 딱딱딱딱 망치질도 하고, 쓱쓱 페인트칠도 하며 태양광 음식물 건조기를 만들었다. 전기를 사용하는 물품을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것과 게다가 그 전기는 플러그를 꽂아 외부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태양열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배운 살아있는 기회였다. 이 모든 일정 후에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탈핵 거리 캠페인까지 진행하며 회원대회를 마무리했다.

탈핵 개사곡 대회 열어 (7월 25일(토), 전주)



서부지역 7개 회원YWCA
(광주, 남원, 목포, 순천, 여수, 익산, 전주)

서부지역은 회원대회 때 ‘탈핵개사곡 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여 Y-틴들이 회원대회를 준비하며 미리 탈핵 공부를 하고, 개사곡과 안무를 만들도록 사전에 안내했다. 수차례의 사전교육과 준비, 연습을 한 결과, 탈핵개사곡대회는 경쟁하는 대회라기보다 7개 회원Y가 준비한 7곡의 노래를 다함께

부르고, 춤추고 즐기면서 탈핵세상을 소망하는 축제의 시간이 되었다. 다함께 축제를 즐긴 터라 심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준비과정, 퍼포먼스, 호응도를 고려하여 Y-틴 회원들의 참여가 가장 적극적이었던 남원Y-틴이 1등을 차지했다. 흥겨운 축제 이후에는 Y-틴의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체육대회도 진행했다. 팀별로 달리고 협동하며 다양한 게임에 집중하는 동안 핸드폰 없이도 재미있을 수 있고, 함께 하는 즐거움도 크다는 것을 느끼며 Y-틴의 소속감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통영 연대도에서 뉴 에너지 체험 (7월 28일(화), 통영)



동부지역 8개 회원YWCA
(거제, 김해, 대구, 마산, 부산, 울산, 전주, 창원)

동부지역에서는 탈핵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기로 하고, 통영 에코아일랜드 연대도를 방문하여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햇볕 뜨거운 7월 말에 버스 타고, 배 타고 먼 길을 간다는 것은 에너지 넘치는 Y-틴에게도 힘든 일이었지만 화석에너지 제로 섬을 표방하는 연대도에서 자연에너지로 냉난방을 가동하는 패시브하우스를 둘러보고, 자전거를 달려 직접 만든 전기로 쥬스와 솜사탕을 만들어 먹는 일은 색다른 경험이었다.

한여름 남해의 한 섬에서 9개 회원Y의 Y-틴 회원들이 함께 만나 시원한 바닷물에 발도 한 번 담그고, 바닷가를 걸으며 바다생물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면서 보낸 이 시간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동부지역 Y-틴 회원대회는 ‘뉴 에이지, 뉴 에너지(New Age, New Energy)’라는 주제에 맞춰 핵에너지 이후의 세상과 Y-틴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세상에 대해 꿈꾸는 시간이었다. (정리: 이지은 한국YWCA연합회 중점운동국 간사)

핵발전소 주변에 산다는 것의 의미

글 |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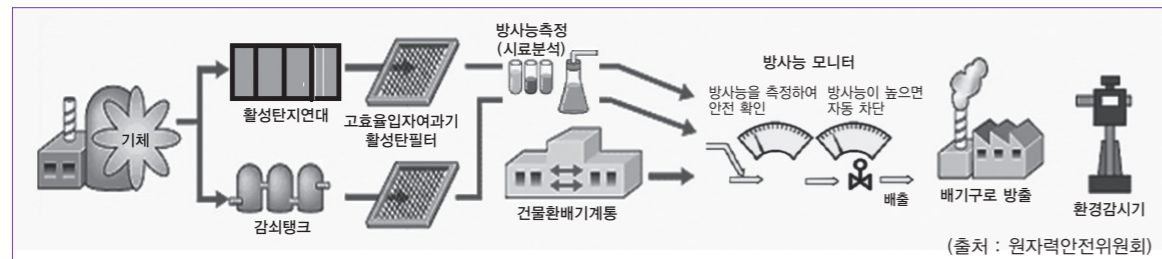
지난 8월 21일 부산동부지방법원에서 핵발전소 주변 주민 갑상선암소송 재판이 열렸다. 이 소송은 우리나라 4개 핵발전소 부지 인근 주민들 중 갑상선암 진단자 고리 242명, 월성 82명, 울진 123명, 영광 98명 합계 545명과, 그 갑상선암 진단자들의 가족들을 포함한 원고들 합계 2,540명이 핵발전소 사업자인 한수원을 상대로 갑상선암 발병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이날 재판에는 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ECRR) 과학위원장인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의 증언이 있었고, 4개 핵발전소 부지 주민들이 5시간 반이 넘게 걸린 증인신문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법정에서 자리가 모자라서 많은 분들이 서서 긴 재판을 지켜보았다.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주변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고, 핵발전소 밀집도도 가장 높은 나라이다. 핵발전소 반경 30km 이내 인구가 약 440만명으로, 인구의 약 10%가 핵발전소 부근에 살고 있다. 이것은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면 그만큼 피해가 매우 크다는 것뿐만 아니라, 평상시 가동 중에도 다수호가 모여 있는 핵발전소에서 그만큼 방사능이 더 많이 배출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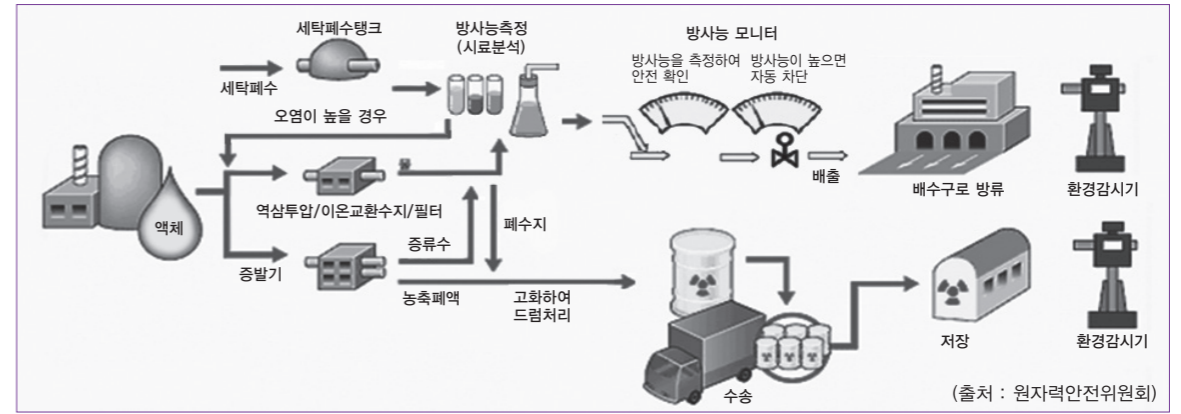
고, 방사능에 피폭되는 주민들의 숫자도 그만큼 많은 것을 의미한다.

서울대 의학연구원이 발표한 ‘원전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자 갑상선암 발병률이 핵발전소 반경 30km 이외 지역과 비교할 때 5km 이내 지역 2.5배, 5~30km 이내 지역 주민들의 1.8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핵발전소에서 가까이 살수록 갑상선암 발병률이 매우 높은 것이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것과 달리 방사능은 냄새도 색도 없어서 못 느끼고 살지만 핵발전소에서는 방사성물질을 액체형태로, 기체형태로 배출하고 있다. 기체 방사성물질은 직접 흡입하기도 하고 지표면이나 농작물에 침착되었다가 우유나 농축산물의 섭취에 의해 사람들이 피폭되기도 한다. 바다로 들어간 액체 방사성물질은 먹이사슬을 통해 농축(생태계 축적)되고 사람들은 오염된 수산물을 먹거나 해변, 해상활동을 통해 피폭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대기 중의 방사능이 매우 낮다고 하더라도 비→지표면→동식물→사람의 단계에 오면 심한 경우에 대기 중 농도의 몇 억배까지 농



[그림 1] 기체 방사성물질 처리 및 배출 절차



[그림 2] 액체 방사성물질 처리 및 배출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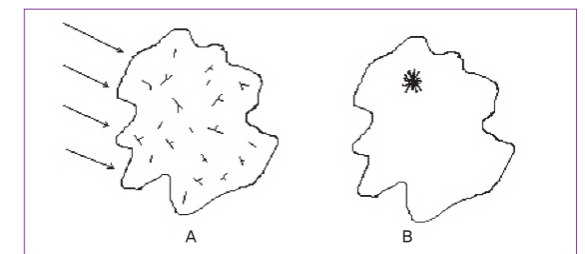
축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이 소송의 쟁점은 첫째 ‘핵발전소에서 방사능을 얼마나 배출하는가?’, 둘째 ‘핵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방사능으로 인근 주민들이 얼마나 피폭되는가?’, 셋째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이 핵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방사능 때문인가?’이다. 이에 대하여 한수원은 핵발전소 주변 환경방사선량과 인근 주민들의 피폭선량은 기준치 미만이고, 핵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갑상선암 진단을 받을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갑상선암 발병률이 높게 나왔을 거라는 주장을 한다. 원고들은 한수원의 이러한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피부 표면에 방사능이 묻어있는지 여부는 방사선검출기로 확인할 수 있지만 신체 내부가 얼마나 피폭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소변 또는 혈액에서 방사능을 측정해야 한다. 한수원이 인근 주민들의 피폭선량이 기준치 미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피폭선량 평가방식인데, 혈액이나 염색체를 직접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ICRP 계산 모델에 의해 추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추정치는 어떤 전제조건 하에 어떤 값을 입력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ICRP모델은 방사선량을 계산할 때 우리 몸의 기관 전체에 방사선 에너지가 평균적으로 나누어진다고 가정한다. 그런데 내부피폭은 장기 전체에 평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DNA의 특정 부분에 집중

되어 공격을 하는 것이다. 외부피폭이 불 앞에서 불을 쬐는 것이라면, 내부피폭은 별경계 단 석탄을 먹는 것과 같은데 ICRP모델은 이 둘을 같게 취급하는 잘못이 있다고 버스비 박사는 지적한다. 아래 그림에서 내부피폭이 실제로는 B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ICRP모델은 A처럼 평균화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피폭의 위험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수원이 ICRP 모델에 근거하여 핵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피폭선량을 평가하는 것은, 실제 주민들이 방사능에 피폭된 것보다 100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위험을 축소하여 평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 ICRP모델은 DNA가 발견되기 전에 물리학자에 의하여 개발되었고, 유전학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이 크다.



당장 핵발전소 방사능 배출 영향 범위 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하고 특히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근거리(최소한 5km) 이내 주민들은 모두가 주시되어야 한다. 정부는 에너지정책의 명분으로 소수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절대 안된다. 근본적으로 핵발전소는 없애야 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 글은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5년 9월 1일자 기사를 필자가 수정하여 게재함을 밝힌다.

에너지 전환으로 함께 사는 길



YWCA 청(소)년 탈핵캠프가 9월 3일(목)부터 6일(토)까지 2박3일 일정으로 경주와 산청 일대에서 Y-틴, 대학청년Y 회원 등 40여 명이 모여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진행했다. 참석자의 소감문을 통해 캠프에서 보고 느낀 것을 함께 공유하길 기대한다.

글 | 신보미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청주Y 대학Y 회원)

핵발전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았다. 핵발전에 대한 내용보다는 실제 현장에 대한 궁금함이 컸다. 원전 주민들은 어떤 방식으로 정당하지 못한 것들과 투쟁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자립을 하는 곳은 어떤 방식을 이용하는지 평소 접하지 못하는 것들을 느껴보고 싶었다.

월성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

사람 하나 없는 넓은 공원들을 지났다. 공원은 풀잎들이 무성했고 보기 좋았다. 그러나 사람 손이 타지 않아 보이는 벤치와 잔디에서 어느 순간 오싹함이 느껴졌다. 아무도 없는 공원을 지나 월성 원전에 도착했다. 버스에 내려 처음 본 것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커다란 건물이었다. 그 앞으로는 얼룩진 천막이 있었다. 힘없이 서있는 천막 안으로 낡은 의자와 여러 잡동사니들이 놓여있었다. 얼마만큼의 시간을 어떻게 지낸 건지 대충 가늠이 됐다. 우리는 출발으로 이동해 양남면 주민들과 만났다.

“예전에는 바다에 들어가면 겁이 날 정도였다. 겁이 나서 들어가지 못했다. 진저리 곰피, 멧게, 전복. 파도가 한번 치면 멧게가 다리로 물가로 때릴 정도였다 아이가. 그때는 바다가 시이퍼렸는데 그게 다 해초들

이었다.” 어르신들은 허허 웃으시며 예전의 행복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셨다.

월성 원전이 처음 들어 올 때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에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주민들은 저항 없이 집을 내놓았다. 대대로 물질을 하고 고기를 낚던 2km 정도의 동네는 300m 정도만 남고 사라졌다. 공사가 끝나고 보니 삶의 터전이었던 곳은 황무지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3,00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원전에서 근무를 하고 가족들도 이곳에서 살게 되면 뭐든 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희망을 갖고 장사도 해보고 집도 지었다. 하지만 한수원 직원들 중 양남면에 사는 사람은 없었다. 대부분 차로 경주 시내까지 이동했다. 양남면에는 상권이 형성되지 않았다. 차려놓은 간판을 그대로 두고 주민들은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했다. 그들이 갖고 있던 눈과 밭은 이미 원전 부지로 제 공해 버린 이후였다. 바다에 다시 들어가니 변해버린 바다에서는 예전처럼 물질을 할 수 없었다.

평생 그곳에서 해녀를 하신 할머니는 이제는 아무도 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다. 예전에 해초들이 엄청 많았는데 핵발전소가 냉각수를 빨아들일 때 해초가 걸려 직원들이 화학약품을 뿌려 해초를 다 죽였다. 해초의 생명력이 끈질긴 만큼 염산도 끈질기게 부었다. 생

태계가 점점 파괴되고 예전에 돈이 되던 해산물들은 하나도 볼 수가 없게 됐다. 해녀들도 자기 구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옆으로 넘어 갈 수도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녀들은 몸이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대부분 갑상선 암에 걸려 투병중이다.

살아갈 기반 시설이 아무것도 없고 주민들은 집만 하나 털링 가지고 있다. 떠나고 싶어도 이곳을 떠날 수가 없다. 집도 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팔 수가 없다. 이주요청을 했지만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 단 하나다. 기본 인권조차 보호되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을 보며 우리는 가슴이 무너졌다.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세월동안 한수원은 지난 6월 월성 핵발전소 앞바다에서 지역주민 낚시 대회나 하며 주민들을 기만했다. 게다가 원전 재가동은 가장 인접지역인 양남면 주민들을 빼고 투표한 결과로 결정된 일이었다. 피해를 준 사람들은 잘 살고 있고 지역주민을 외면하는 생활은 눈물이 날 정도로 비참했다.

산청 민들레학교와 대안기술센터

산청은 맑았다. 산청에 있는 사람과 자연은 한 없이 맑았다. 한적한 흙길을 밟으며 마음을 비우고 평화를 찾는 시간을 가졌다.


중고 기숙 대안학교인 민들레학교는 자립과 협동을 살려내는 공동체를 만드는 곳이다.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교가 속한 민들레공동체 대표인 김인수 선생님은 인류의 빈곤과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문제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갖고 계셨다. 민들레 학교에서는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 생활을 한다.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보급하기도 한다. 이곳에 살기만 하면 먼 곳에 있는 이들과 삶을 공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들의 생활과 산청에서의 생활이 공

유되기 때문이다.

삶 전체를 변화시키지 않고 그들과 공유한다는 것은 어렵다. 때문에 민들레학교에서는 작은 벌레들과도 공존하는 것을 배운다. 학생들은 나무와 식물 주변을 마른 잎으로 덮어준다. 땅에도 옷을 입히는 것이다. 옷을 입힌 땅 1제곱미터에는 수백 마리의 벌레들이 살고 있다. 흙을 조금만 파니 거기서는 지렁이를 비롯한 여러 벌레들이 나왔다. 땅이 살아있다는 것은 공존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흙을 떠나고 공존을 떠나고 검손을 떠난 문명이 됐다.

민들레학교에는 에너지 자립 주간이 있다. 자급자족을 하려면 식량, 경제, 교육, 문화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전기, 가스, 물을 다 끊어 버리고 사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할까 의심스러웠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던 문명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건물을 지어놓고 태양광 패널 몇 개 올리는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친환경을 이용한 과학적 설계를 하면 가능하다. 전기가 없어도 빵을 굽고 밥을 지을 수 있다.

우리는 좀 더 느껴보기 위해 직접 태양열 오븐을 만들었다. 호일로 태양열이 잘 들어오도록 자르고 붙였다. 3시간 정도의 작업으로 만들어진 태양열 오븐을 보니 기분이 이상했다. 시간을 들여 만든 이 오븐으로 하나의 생명이 다시 살고 필요 없는 희생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나의 삶이 부끄럽게만 느껴졌다.

양남면 주민들은 자신들의 희생이 꼭 필요해서 국가가 발전하는 거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희생은 안 해도 되는 희생이다. 이유도 모르는 희생을 제물로 누렸던 이전의 내 환경이 죄스럽기만 하다. 이제는 전제를 바꿔 발전소를 짓는 것보다 에너지를 아껴 쓰고 줄이는데 더 힘써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 작은 절제가 앞으로 어떤 이들의 삶을 지킬 수 있고 환경을 지킬 수 있다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분단을 딛고 평화를 나누다

2015년 제2차 YWCA 전국사무총장협의회가 8월 18일(화)부터 8월 20일(목)까지 우리나라 최북단인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파주에서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글 | 황기숙 (의정부YWCA 사무총장)

올해가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으로 의미 있는 해이고, 광복절 즈음인 8월 중순에 진행되는 협의회로, 한국YWCA 6대 과제 중 '평화통일'을 주제로 제2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는 경기지역이 주관하였다.

협의회 첫째 날, 전국 각지에서 새벽부터 출발한 사무총장들이 '동역자들과 함께 평화를 나누고 통일을 이야기 한다'는 설렘을 안고 파주 교하 청소년문화의집 대강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시작하였다. 이후 전국의 YWCA사무총장들을 격려하기 위해 멀리 파주까지 방문하신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 행정 2부지사의 격려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YWCA 강력한 지원군으로 YWCA운동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애정 어린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참가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이번 협의회의 하이라이트인 주제 강연은 한반도 평화연구원 원장이신 전우택 연세대 교수님의 '평화통일 운동의 기독교적 성찰, 분단과 통일에 대한 정신의학적 고찰'이란 제목으로 이어졌다.

전우택 교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정신의학 교수로 한반도 평화연구원 원장으로 KPI 평화포럼을 45차까지 진행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쓰고 계신

분이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인천YWCA 증경회장으로, 아버지는 전의철 선교사이시다. 특별히 할아버지 이신 전재풍 목사님은 최용신 선생 유언장 필체의 주인공으로 일찍이 YWCA와는 뗄 수 없는 인연으로 Y가족이란 연대감에 강연에 더욱더 집중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

주제 강연을 통해 새로운 관점으로 분단과 통일에 대해 생각하게 하게 되었다. 분단은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회적 트라우마이지만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을 넘어서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원하였던 분단은 아니어도 분단에 의해 붕괴된 민족공동체, 공간공동체, 이성공동체를 한국사회 속에서 다시 복원하고 붕괴 이전보다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단을 통해 우리 민족은 인류의 정신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기에 '치유로서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셨다. 더욱이 통일은 치유라고 결론을 말씀해 주셔서 많은 울림과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무엇보다도 강연 말미에 사무총장들의 질문지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통일과 평화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생각을 나



눌 수 있었다.

주제 강연의 감동을 안고 이어서 2016-2017년 정책 제안 및 경영가이드라인 검토 워크숍을 통해 YWCA 정책 및 운영정책 관련하여 함께 논의하고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저녁식사를 하며 사무총장님들과 교체하는 시간을 가진 후 숙소인 파주 출판문화단지에 위치한 숙소로 이동해 첫날 일정을 마무리 했다.


협의회 둘째 날인 19일은 통일과, 평화, 그리고 문화 감수성을 키우는 컨셉의 일정으로 분단의 현장 DMZ 투어와 출판과 문화의 도시 파주를 둘러본 후 그 느낌을 그대로 안고 '멋진 통일운동 신나는 평화운동'의 저자 김창수 선생님을 모시고 북 콘서트를 진행하였다.

김창수 선생은 현재 코리아연구원 원장으로 이전에 문익환 목사 기념사업 및 민화협 정책실장으로 오랫동안 통일운동과 평화운동에 몸담아 왔었고 문민정부 시절 남북교류 과정에서 많은 역할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 살아 있는 많은 이야기를 콘서트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다. 관용과 공존의 통일론을 주장하고, 통일에 대한 논의가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사전에 사무총장들이 미리 읽고 온 책의 내용을 짧게 요약 강의 후에 토크콘서트가 진행되었는데, 시간 관계

상 2015년 현재 세계정세와 남북한 상황들을 고려한 평화통일 방법론 등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지 못하고 마쳐야 함이 못내 아쉬웠다.

마지막 날의 일정은 전국사무총장협의회 사무회의로 가사지원분야 NCS 개발 필요성과 YWCA활용방안에 대한 보고와 경영가이드라인 검토와 제안의 건과 정책협의회 일정안내 및 준비, 그리고 하반기에 진행될 지역위원회별 간담회 및 모금 워크숍 일정확정 등에 대해 협의한 후 폐회예배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이번 파주에서의 사무총장협의회를 통해 분단의 현실을 몸소 체험하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감수성과 평화통일운동 활동가로서 사무총장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막연한 기도와 기대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설정으로 차근차근 정성으로 통일을 준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돌아왔다.

많은 이야기와 좋은 느낌으로 전체의 일정을 마쳤지만 아쉬운 점은 판문점 방문이 신청한 날짜에 맞춰 승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과 빠듯한 일정으로 아름다운 지혜의 숲 지지향에서 많은 책들의 숲에 문혀 여유 있게 맘껏 책을 읽고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지 못해 못내 아쉬웠다. 

소중한 생명에게 든든한 돌봄으로 울타리가 되다

YWCA가 운영하고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지원하는 '생명꿈나무돌봄센터 운영 사업'은 보육사각지대의 해결을 위해 지난 2011년도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다.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보육사회 구현'을 목표로 2015년 현재 제천, 동해, 파주, 하남 지역에 5개의 생명꿈나무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의 보육사각지대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육을 제공해오고 있다.

글 | 김상은 (한국YWCA연합회 중점운동국 간사)



취약가정에게 버팀목이 되어 양육의 짐을 나누어지다

흔히 관심이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쓰이는 '사각지대'가 신체·정서·지능 등 발달의 전 영역에 걸쳐 자라나는 아동들의 '보육'과 하나로 쓰이게 되어 '보육 사각지대'라는 말이 생겨났다. 사랑과 보살핌 속에 자라나야

하는 아이들에게 참 마음 아픈 말이고도, 태어난 자체만으로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미안한 말일 뿐이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생명존중·생명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지역사회와 함께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남 생명꿈나무돌봄센터는 소도시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보육 및 돌봄 취약가정(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약 20여 명의 유·아동들에게 든든한 울타리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하남 생명꿈나무돌봄센터는 연령대별 교재·교구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과 예술 및 신체 활동 그리고 매월 다양한 문화경험으로 박물관 및 공연 관람, 농장 체험 등이 진행되고 있다. 가까운 생태공원을 방문하여 푸른 새싹들과 피어나는

꽃들을 보며 자연을 느끼기도 하고, 유적지를 방문하여 눈높이에 알맞은 역사 공부를 하기도 한다. 또한 지역 내 재능기부의 도움을 받아 창의력을 키워주는 비누공예와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친구들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도 진행되고 있어 아이들에게 즐거운 놀이터와 배움터가 되고 있다.

하남 생명꿈나무돌봄센터의 심영숙 센터장은 "처음 센터에 왔을 때 산만하고, 전혀 집중하지 못하던 아이가 센터 내의 규칙을 하나씩 지키기 시작하고 선생님들의 말을 경청하며 활동을 따르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공격적이었던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는 법을 알아가고, 매 활동마다 자신감이 없어 못한다고 울던 아이가 점점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발표하는 모습을 볼 때에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고 이야기하며 이처럼 아이들의 변화를 볼 때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생명꿈나무돌봄센터의 의미와 필요성을 되새기고 보람을 느낀다고 전해왔다.


한편, 센터에서 지내다보면 눈에 띄는 이상행동을 보이지는 않아도 아이의 편치 않은 마음이 분노와 눈물 등 다양한 모양의 감정 표출이 자주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 심영숙 센터장은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을 잘 헤아려주며 시원하게 자신의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고민을 이야기해주기도 하였다.

단순 돌봄에서 이제는 정서와 같이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어루만져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 것은 아이를 향한 참된 관심과 사랑이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이에 심 센터장은 재능기부를 통한 미술심리치료를 하반기부터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더 많은 공부를 통해 아이들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겠다는 뜻을 보여주었다.

제도권 내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아동에게 돌봄 제공

하남 생명꿈나무돌봄센터에는 중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비교적 지원이나 보장체계가 마련되어있는 다문화 가정 아동이 아닌, 중국 국적 부모의 자녀이기에 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이 미비한 상태로 특수한 형태의 보육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지원이 가능할 거라는 병설 유치원에서조차 저소득 외국인 자녀에 대해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 규정이 없어 서로 당황하는 일을 겪기도 했다.

부모 모두 한국 땅에서 맛벌이로 가게를 이어가고 있지만 보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적지 않은 어린이집 보육료를 매 달 납부하는 일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고, 어린이집의 보육시간 후에는 아이를 돌보아줄 가족 역시도 마땅히 없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 직장 동료의 소개로 알게 된 곳이 바로 하남 생명꿈나무돌봄센터였다. 야간 돌봄의 이점 뿐 아니라 외동으로 자란 아이가 센터에서 만난 형, 누나,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며 즐겁게 센터를 이용하고 있어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긴다며 수시로 감사의 뜻을 전해온다.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YWCA의 생명꿈나무돌봄센터는 동일하게 필요한 돌봄과 보육임에도 제한적인 접근과 복잡한 절차들로 막막했던 한 가정에게, 아이들은 모두 존중받아 마땅한 생명이라는 이유 아래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고마운 이웃이다. 우리들은 이러한 생명사랑운동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을 돌보아 희망찬 내일을 선물하고, 아이들이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너른 마당이 되도록 세상을 살리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머지않아 이 땅이 더 이상 보육사각지대가 없는, 모든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육지대의 터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변화를 주도하는 담대한 지도력 2015년 세계대회를 준비하며

글 | 이명혜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세계대회 준비TF 팀장)



28th World YWCA Council

Bold and Transformative Leadership - Towards 2035
11-16 October, 2015

올 10월 태국 방콕은 전 세계에서 모인 YWCA 여성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로 다짐하고 그 역할을 논의하는 목소리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YWCA세계대회는 세계YWCA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4년에 한 번 개최된다. 4년간의 전 세계 YWCA의 운동을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운동방향을 결정하며 주요 결의문을 통과시키는 등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된다. 아울러 전 세계 여성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고 각 대륙별로 주요한 사안들을 세계YWCA와 소통하며 운동의 힘을 결집시켜 나갈 세계YWCA 회장단과 이사들이 선출되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2015년 제28회 YWCA세계대회는 '변화를 주도하는 담대한 지도력-2035(Bold and Transformative Leadership Towards 2035)'이라는 주제로 태국 방콕에서 10월 11일(일)부터 16일(금)까지 개최된다. 정책결정과 상호 교류를 위해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600여 명의 대표들이 참여하며 한국YWCA에서도 지역과 청

년을 대표하는 총 23명의 대표단이 함께할 예정이다.

올해 세계대회의 특징은 지난 제27회 YWCA세계대회(2011년, 취리히)에서 논의된 '2035 YWCA 운동 방향'을 전 세계YWCA의 의견을 적극 취합하여 보다 구체화된 제안서를 승인하고 이행할 것을 결의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번 세계대회에서는 올해부터 20년 후를 내다보며 전 세계가 함께 힘을 모을 '세계YWCA비전 수립 2035 제안서'가 구체적으로 제출되어 전 세계 대표들의 논의를 거쳐 채택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계YWCA는 각 국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고 한국YWCA도 세계YWCA에 생명세상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위해 탈핵의 이슈를 포함할 것과 우리 운동의 정체성인 YWCA의 기독교성이 강조될 수 있도록 수정제안을 했다.

한국YWCA에서는 금년에 개최되는 세계대회에 참여하면서 크게 두 가지에 주력하고 있다. 하나는 한국YWCA의 운동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과 아울러 한국



YWCA의 지도력들이 이사와 공천위원 후보로 출마하여 세계YWCA와 한국YWCA 운동의 연대를 강화하고 YWCA의 기독교성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더욱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YWCA는 한국YWCA운동을 세계 회원국들과 소통하기 위해 3개의 워크숍을 주관하고 한국과 일본의 공동결의문도 제안한다. 한국YWCA 탈핵운동과 평화운동, 그리고 우수한 청소년금융교육 프로그램인 씽크머니 프로그램들이 전세계 회원들에게 잘 전해지고 더 나아가 연대하여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 모든 참가자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또한, 한국YWCA는 세계YWCA이사 및 아시아지역 부회장 후보로 한미미 한국YWCA 실행위원(북한어린이돕기사업단 위원장)을 추천하였고, 원영희 한국YWCA실행위원(현 세계YWCA 이사)을 공천위원으로 추천하였다.

한국YWCA 대표단은 세계대회의 전반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여러 번의 모임을 갖고 있으며 세계대회 참석에 대한 기대와 함께 어떻게 하면 한국YWCA 운동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각 국가 간의 연대를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렇듯 제28회 세계대회에는 한국YWCA의 많은 대표들이 참가하고 2명의 후보가 출마하며 3개의 워크숍 진행과 한일 공동결의문을 제출하였기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준비와 기도가 필요하다.

전국의 52개 회원YWCA를 섬기는 모든 자원지도자, 실무자, 회원들도 YWCA 세계대회를 위해 함께 마음



세계YWCA 포토 콘테스트에 참가하는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들 모습

을 모아 주시고 더불어 한국YWCA 지도자들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세계대회의 참여가 100년을 향한 한국YWCA에게도 세계의 운동을 한국에, 한국의 운동을 세계에 확산시키는 비전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제28회 YWCA세계대회 주요일정과 프로그램 소개

- 10월 9일~10월 10일 **젊은여성포럼** (Young Women's Forum): 각 회원국Y 젊은대표(30세 이상) 대상 포럼
- 10월 10일 **세계YWCA 이사회** (World Board Meeting)
- 10월 11일~15일 **비전 2035 워크숍** (Envisioning 2035)
- 10월 11일~16일 **세계대회 전체회의** (본회의, Business Meeting): 세계대회 위원회, 세계대회 전체회의 업무(운영 보고, 2016~2019 세계Y 주력운동/회장, 회계이사, 세계YWCA이사 18명, 부회장 6명, 공천위원 5명 선출)
- 10월 12일 **Asian Journey**: 아시아 국가의 여성과 젊은 여성이 처한 주요 이슈 발표 (여성폭력, 이주여성, 성매매, 여성재생산과 권리, 평화와 안전, 조혼 관련 활동 등)
- **각 회원국Y 회장과 사무총장 회의**
- **총 36개의 워크숍** (Members Workshops & Roundtable)

기독교 여성들이 바른 삶을 '실천'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오랜 세월동안 YWCA의 평화통일운동에 함께 해 온 주선에 명예연합위원을 한미미 북한어린이돕기사업단 위원장이 지난 8월 31일(월) 연합회 회장실에서 만났다.



주선에 명예연합위원 약력

| | |
|-----------|--|
| 1940 | 평양 정의여고 졸업 |
| 1950 | 장로회신학대학교 졸업 |
| 1958 | 뉴욕신학대학 졸업 |
| 1963 | 뉴욕대학교(NYU) 교육학과 대학원 졸업 |
| 1984 | 퀸즈칼리지(Queens College) 박사과정 수학 |
| 1966~89 | 예정통합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회장 |
| 1967~89 |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 |
| 1978~87 | 대한YWCA연합회 실행위원 |
| 2006~2009 | 탈북인종합회관 관장 |
| ~현재 | 한국YWCA연합회 명예연합위원, 사회복지법인 전국여교역자연합회복지재단 이사장, 한국기독교여성모임 대표회장 |

한미미: 선생님, 오랜만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 갖고 계신 북한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제가 늘 존경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건강은 좀 어떠신지요?

주선애: 대답하는 자리에서 만나니 나도 반갑습니다. 지팡이는 짚고 다녀도 걸어도닐 수 있으니 행복하지요.

한미미: 선생님께서 평양에서 출생하셨고, 평양신학교를 다니시다가 월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이야기를 들려 주신다면요.

주선애: 평양에서 여학교를 졸업한 뒤로 공부가 계속 하고 싶었는데 전문대학이 신학교 하나뿐이라 평양신학교를 갔어요. 원래 해방 전에는 여자신학교가 따로 있었는데, 해방 후에는 하나로 합쳐졌지요. 여자들은 지하 1층에서 따로 공부하자는 했지만요, 그래서 제가 평양신학교에 여자로는 1회로 입학했지요.

한미미: 개인적으로 선생님께서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주선애: 신학교를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신학생들 가르칠 때 주님 못 만나고 온 아이들도 이해를 하지요.(웃음) 1학년이 한 반에 30명 남짓 되었는데, 거기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이가 나를 상당히 시기하고 그랬어요. 그이와 어쩌다 보니 싸움이 붙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약자이고 해서 반 동무들이 나를 감싸주니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나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신학생인데 이렇게 싸우고 그러면 되겠나 싶어서 내 안에 처음으로 죄의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날부터 근처 교회로 가서 철야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철야를 하다 보니, 2천년 전 예루살렘의 예수님과 내가 연결고리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손바닥에 못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 죄를 다 사해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때가 23살 가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미미: 네. 지난 6월에 안양Y의 대학청년Y 회원들과 선생님과 강교자 증경회장님께서 공동대표로 계시는 살롬공동체의 탈북 청년들과의 만남이 있었죠. 살롬공동체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주선애: 탈북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1년에 만난 황장엽 선생 때문이었어요. 탈북자들을 정착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복지 문제나 취직 등에 있어서 상담

해주는 곳을 하용조 목사님의 권유로 '탈북자종합회관'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한 5년을 회관 일을 하고, 그 이후로는 제가 늘 기독교 교육을 하면서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앞으로는 생활교육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일을 실제로 하게 되었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집에 방이 좀 남아서 탈북한 청년들이 두 사람씩 와서 같이 살면서 공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벌써 오래 됐으니까 이제는 그 아이들이 진로도 찾았고, 결혼도 하고, 결혼한 아이들이 또 다른 탈북 청년들을 초대해서 맛있는 것도 해 주고 하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좋아요.

한미미: 그들을 전적으로 섬기는 선생님의 모습이 참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사실 개개인의 삶에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일이 정말 쉽지가 않으실 텐데요.

주선애: 사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 아이들이 중국에서 정말로 예수 잘 믿던 아이들에게요. 탈북 청년들한테 왜 이 곳으로 왔냐고 하니 중국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남으로 가서 신학을 해서 통일이 되면 북한으로 가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꿈은 다른 것이 없고, 이들이 생활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닮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도무지 길을 모르니까 살아갈 방법을 모르게 됩니다.

한미미: 선생님께서 또 먼저 경험하셨어서 더 큰 사랑으로 이 청년들을 더 잘 이해해 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선애: 하나님이 늘 그렇게 하셨어요. 내 삶에서 먼저 늘 경험하게 하시고 나중에 일감을 주시더라 말이에요. 38선을 내가 혼자 넘어 왔어요. 그 때 너무 배가 고파서 손가락 하나도 전혀 못 움직이겠어요. 사람이 배가 고프다는 것은 진짜 슬프다는 표현보다도 서럽다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굶으셨던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도 배고픈 인간의 그 밑바닥에 계셨는데' 하면서 은혜가 되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때 기도를 했어요. 여기서 살려만 주시면 내가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하고 '남한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했어요.

아버지가 두 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로 나를 키우셨지요. 그 때 아버지 유언이 다른 생각 하지 말고 선애가 딸이지만 기독교 선생을 꼭 만들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

를 그 선생 만들기 위해 나를 위해 평생을 기도해 주셨어요. 저는 뛰어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기도로 이렇게 나를 이 시대에 할 일이 있게 만드셔서 정말 감사하지요.

한미미: 네, YWCA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선생님께서 YWCA에서 평화통일운동을 일찍이 시작하셨는데, 이 시대의 기독교 여성들이 평화통일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제안을 주신다면요.

주선애: 주변에 이제 탈북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탈북해 온 사람들이 여기에 오면 참 많이 아파합니다. 두통도 심하고, 암 발병률도 높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해 주고,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들도 탈북했다고 얘기 안 하고 어디 가서는 조선족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돈이 최고인 사회 속에서 그들 자신이 바닥에 있다고 생각하고 위축감이 드니 말이에요. 탈북자들이 보이스 피싱한다는 이야기들처럼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치유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터치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같이 나눠먹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존중받는다느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지요. 또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이들에게 먼저 윤리를 교육하고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데에 기독교 여성들이 나서서 해주길 바라지요.

한미미: 네, 선생님께서 YWCA에서 하셨던 운동들 중에 가장 애착이 가고 또 기억에 남는 운동은 무엇이었던지 궁금합니다.

주선애: 저는 90년대에 했던 '바른 삶 실천운동'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당시에 위원장을 하면서 지방으로도 많이 다녔었어요. 물질이 중심이 된 사회 속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여성들이,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또 속한 곳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생활운동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시대에 더욱 중요해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맑은 사회를 만들자 하는 캠페인을 해서 기독교 여성들부터 삶 속에서 정직하게, 양심을 바로 하고 살면 정말 이 사회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한미미: 네, 선생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맑은 양심과 윤리교육, 또 생활운동이 같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여성들이 이 일에 더 힘쓰고 애써야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편집실)

결혼 1주년을 맞아 사랑을 나눕니다

북한어린이돕기사업단을 통해 북한 어린이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후원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기부도 여러 형태로 다양해지고 있다. 기부와 나눔으로 특별한 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있는 후원자들의 기쁨후원은 더욱 의미있게 다가온다. 결혼, 출산, 첫 생일 등 일생에서 중요한 날에 나눔을 실천하며 평화를 만드는 날로 기억하고자 하는 기부자들의 이야기는 후원자들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백동현, 이지은 부부입니다.

저희는 이제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새내기 부부입니다. 남편은 요리사, 저는 특수교사로 한국에서 근무하다가 유학차 해외에 있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저희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소외되고, 꿈을 잃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삶을 살자는 동일한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교회 단기선교, KOICA 봉사활동 등을 하며 이 비전을 조금씩 실천하고 있습니다.

결혼예배 때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웃과 잘 나누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부부의 인연을 시작했습니다. 더 많이 나누기 위해서 더 많이 배우고 오자며 떠나왔지만 유학생들이 시작되면서 당장 우리 손에 남아있는 것을 헤아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일 년이 흘렀고 첫번째 결혼기념일이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가보지 못했던 맛있는 레스토랑에서 거창한 식사를 하고 돌아왔는데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그때쯤 썸 지인의 SNS를 통해 한국YWCA연합회의 북한어린이돕기운동에 관련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을 통해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았습니다. 유학생이라는 신분, 사회생활을 하다가 다시 학생이 되어 공부한다는 것이 때론 버겁고 힘들지만 우리가 채워지고 넘칠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는 훈련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 아이들이 영양실조와 후천적 요인들로 인해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10년 뒤, 20년 뒤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또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지 생각하고 고민하며 기념기부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오래전부터 북한에 굶주리고 헐벗은 아이들에게 마음에 닿아 있었지만 그 마음에 대한 실천을 이제야

시작합니다. 작은 한걸음을 떼는 이 순간이 굶주리고 있는, 무엇보다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닿는 날까지 실천의 발걸음을 계속 되기를 소망합니다.

걸음을 다시 땔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걸음이라도 계속 나아가려고 애쓸 수 있는 용기를 갖고 나눔을 실천하는 부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함이 새로운 디자인으로 찾아갑니다



광복70주년을 맞이하여 북한어린이 돕기모금운동 저금통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보완되었습니다. 전국 YWCA 회원들을 비롯한 북한어린이돕기운동의 후원자들이 어린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3:18)”는 말씀을 토대로 나눔으로 실천하는 YWCA평화운동이 확산되고 보다 활발한 인도적 대북지원이 전개되길 기대합니다.



북한어린이돕기 모금 현황

2015년 7월 1일 ~ 8월 31일

| 구분 | 기부자명단 | 금액 |
|---------|---|-----------|
| CMS 기부 | 강승아, 강현중, 고세영, 고은희, 곽지영, 구정혜, 국승훈, 권민혜, 권민택, 권진, 권순복, 김가현, 김건세, 김경숙, 김경희, 김기동, 김명희, 김미애, 김병호, 김사라, 김상은, 김수연, 김애련, 김영자, 김일곤, 김은경, 김재연, 김정린, 김주영, 김주현, 김진용, 나윤진, 남희숙, 명진숙, 문권희, 문미란, 문인수, 민선영, 박보람, 박영수, 박영순, 박용옥, 박임희, 박은실, 박진화, 박효정, 배정미, 백정미, 백혜진, 서명희, 성동숙, 송록희, 송윤경, 신인숙, 심은옥, 안은정, 안정희, 안혜진, 양종원, 엄효정, 원영희, 유도희, 유성희, 윤명신, 윤수정, 윤혜식, 오소영, 오시창, 오영란, 오현숙, 이남희, 이명혜, 이영미, 이영숙, 이순덕, 이윤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주영, 이지은A, 이지은B, 이천진, 이항재, 이행자, 이혜련, 이혜진, 임강숙, 임국이, 임진영, 임향옥, 장경자, 장미란, 장선희, 장윤우, 전배자, 전정미, 전하예, 전현주, 정경란, 정동신, 정서연, 정순, 정용, 조성애, 조영미, 조은영, 조은희, 주락현, 진인식, 채정희, 최수산나, 최지혜, 최형선, 하은경, 한영수, 한주경, 함희경, 홍기자, 홍선심, 홍수진, 홍현정, 황홍백(총 123명) | 3,889,500 |
| 개인 기부 | 김미, 명진숙, 윤화자, 이진용, 임옥고, 전인선, 최혜실, 하은경, 호프 엘리자베스 메이 교수 | 548,190 |
| 협력교회 | 기쁜소식교회, 성광감리교회, 약전평강교회, 한양대학교교회 여성교회, 희성교회 | 450,000 |
| 기관 및 단체 | 마포구청 선교 신우회, 외환은행 명동지점 | 248,700 |
| 회원YWCA | 수원, 제천, 통영 | 1,718,500 |
| 온라인모금 | 해피빈 | 10,600 |
| 합 계 | | 6,865,490 |



YWCA 평화기도회와 평화운동 세미나

자유, 화합, 연대의 '평화기' 수여

YWCA 탈핵 불(火)의 날 캠페인

연합회 소식

9월 월례아침기도회

9월 1일(화) 오전 8시 연합회 강당에서 9월 월례아침기도회가 있었다. '사막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이세형 목사(협성대 신학과 교수)가 말씀을 전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이 먼저 상호 인정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를, 분유보내기 뿐만 아니라 북한 땅에 하나님의 정의, 평화, 생명의 터를 YWCA라는 이름으로 다시 일구어 내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렸다. 월례아침기도회는 매월 첫날 전국의 회원YWCA가 동일한 말씀을 나누고, 같은 기도제목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이다. (자세한 내용은 5쪽에)

YWCA 평화기도회와 평화운동 세미나

8월 12일(수) 연합회 강당에서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 기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YWCA 기도회와 세미나'를 열었다. YWCA 평화기도회에 참여한 회원 80여 명은 한반도의 갈라짐으로 인한 고통과 희생, 갈등의 상황에서 앞으로 평화를 위한 십자가를 지겠다는 회개와 결단을 하였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YWCA가 93년간 역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펼쳐왔던 평화운동을 되돌아보고 광복 70주년의 시대적 사명에 부합하는 YWCA 평화운동과 과제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유, 화합, 연대의 '평화기' 수여

8월 24일(월) '2015 국제여성평화결기 WCD(Women Cross DMZ)'를 통한 여성평화운동의 기여와 YWCA 운

동이 19세기 여성들이 주도한 평화운동의 역사를 계승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한국YWCA연합회가 '평화기'를 받았다. 이날 평화기 수여는 미국 센트럴 미시간 대학의 호프 메이(Hope Elizabeth May) 교수가 연합회를 방문하여 차경애 회장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평화기는 1897년 코라 디 브라자 백작부인에 의해 제작되었는데, '진정한 애국심(true patriotism)'인 자유와 화합, 연대의 가치를 상징하며, '나는 평화를 위해 일한다(PRO CONDORDIA LABOR)'라는 모토가 전면에 새겨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근리재단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에 수여된 바 있다.

YWCA 탈핵 불(火)의 날 캠페인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이 서울 명동 연합회 앞과 전국 회원YWCA에서 함께 진행되고 있다. 여름방학기간 동안 '청소년 탈핵 캠페이너'들이 방문해 캠페인 때마다 명동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호소문을 낭독하며 피켓과 울동으로 탈핵의 중요성을 알렸다. 한편 제72차 캠페인은 동해Y가, 제76차 캠페인은 서울Y가 주관하여 시민들에게 오래된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알리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 서명을 받았다.

지역별 Y-틴 회원대회

지역별 Y-틴 회원대회가 7월 한 달 동안 4개 지역에서 열렸다. 북부지역 Y-틴은 7월 18일(토) 서울에서 열렸으며 탈핵 강의와 슬로건 피켓을 만든 후 광화문 광장에서 환경 플래시몹을 촬영했다. 중부지역 Y-틴은 같

은 날 대전위캔센터에서 대학Y 선배가 들려주는 탈핵 강의, 비전력 비품 만들기, 탈핵 거리 캠페인으로 진행했다. 7월 25일(토) 열린 서부지역 Y-틴 회원대회는 전주 바울센터에서 Y-틴이 직접 하는 탈핵 강의, 탈핵 개사곡 경연대회, 체육대회로 진행됐다. 동부지역 Y-틴은 7월 28일(화) 통영 연대도에서 연대도 체험프로그램(태양에너지를 활용한 먹거리 만들기)과 탈핵 플래시몹 촬영으로 진행했다. (자세한 내용은 20쪽에)

제 4차 YWCA생명비전연구소 콜로키움

7월 22일(수) 오전 10시 연합회 강당에서 제4차 생명비전연구소 콜로키움이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백소영 이화여대 기독교사 회윤리학 교수가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기독교성'을 내용으로 하는 발제를 맡아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기독교와 기독교 공동체의 실천방법에 대해 짚어보았다. 콜로키움의 주요 내용은 생명비전연구소 웹진(<http://blog.naver.com/ywcamai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씽크머니 제2차 기초강사교육

씽크머니 제2차 기초강사교육이 7월 24일(금)에 서울 YWCA 강당에서 있었다. 씽크머니 온라인 기초교육 과정을 이수한 예비 강사 90여 명이 참석해 YWCA와 씽크머니에 대한 의미, 수혜자 맞춤형 금융교육 및 재미있는 금융교육 씽크머니 버스의 '착한 기업가' 체험 활동 활용방안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씽크머니' 교재 3종 금융감독원장상 수상

'배우고 체험하는 금융교실 씽크머니' 교재 3종이 제10회 금융교육 공모전 금융교육 우수프로그램 교재 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되어 9월 3일(목)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했다. 씽크머니

교재 3종은 초등학교 저학년용, 초등학교 고학년용, 중학교용으로, 이 중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들을 위한 교재 2종은 지난 2012년 서울특별시교육감 인정 교재로도 선정되었다. 씽크머니 교재는 전국의 학교 및 방과후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금융교육 소외 지역 청소년들이 생산, 판매, 소비, 저축, 기부 등 다양한 금융 활동을 체험하는 '재미있는 금융교육 찾아가는 씽크머니 버스' 프로그램과 씽크머니 금융상담가, 씽크머니(Think Money) 국·영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소년들의 필요에 맞는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돌봄임원 워크숍

7월 24일(금)~25일(토) 1박 2일간 YWCA버들캠프장에서 돌봄임원워크숍이 진행됐다. 회원Y 돌봄 임원과 돌봄 담당 실무자 등 총 85명이 참석한 가운데 먼저 돌봄노동의 의미와 가치 및 돌봄관련 노동관계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동안의 돌봄노동으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드라마 테라피를 통해 힐링하는 공동체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 부천Y 돌봄과살림 협동조합 창립 사례를 공유하며 돌봄사업의 공동체형 사업모형의 실재를 확인하였고, YWCA 직업훈련 역사를 돌아보며 Y 돌봄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가사지원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기관 선정

연합회는 지난 1월 23일 국회에서 'NCS가 돌봄노동시장과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제도 시행에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직종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를 요청한 데 이어 지난 7월 가사지원분야의 NCS 개발 기관으로 선정되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제 4차 YWCA생명비전연구소 콜로키움

씽크머니 제2차 기초강사교육

돌봄임원 워크숍



전문 교수진과, 영리·비영리를 망라한 개발위원 10여 명이 총 3차례의 워크숍을 거쳐 10개의 능력단위(직무)와 37개의 능력단위요소를 추출해냈으며 9월중 현장 검증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사지원 분야의 NCS는 11월 20일까지 개발, 완료될 예정이다.

제2차 YWCA 전국사무총장협의회

제2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가 8월 18일(화)부터 20일(목)까지 파주에서 연합회와 회원 Y 사무총장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전우택 교수(한반도 평화연구원 원장, 연세대학교 교수)의 '평화통일운동의 기독교적 성찰, 분단과 통일에 대한 정신의학적 고찰'을 주제로 한 강연을 시작으로 DMZ 현장방문, '멋진 통일운동 신나는 평화운동'의 저자 김창수 원장(코리아연구원 원장, 전 민화협 정책실장)과 함께하는 북콘서트, 경영가이드라인 검토, 2016~2017 정책제안 등이 진행되었다. 또한 모듈별 워크숍으로 사무총장 간의 소통과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는 시간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26쪽에)

영화 '밀양 아리랑' YWCA 공동체 상영회

765kV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막기 위해 싸워 온 밀양 주민들의 기록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밀양 아리랑'의 YWCA 공동체 상영회가 8월 25일(화) 서울YWCA 마루홀에서 열렸다. 서울YWCA와 공동주최한 이날 상영회에는 70여 명의 회원, 실무자, 일반 시민들이 방문해 관람하였으며, 원전의 위험성과 송전탑 건설의 부당함, 또한 이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는 시간을 가졌다.

YWCA 청(소)년 탈핵캠프

YWCA 청(소)년 탈핵캠프가 9월 3일(목)부터 9월 5일(토)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Y-틴 회원들과 대학청년 Y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핵없는 세상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경북 경주와 경남 산청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이유진 YWCA 전문위원의 강연을 시작으로 월성 원전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만

나는 간담회와 함께 태양열 오븐 만들기 체험, 핵없는 세상 만들기 워크숍 등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24쪽에)

YWCA 어린이집 교사 해외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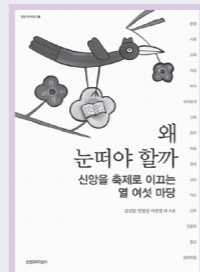
YWCA 어린이집 중견교사와 원장 20명이 어린이집 교사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9월 2일(수)부터 9월 6일(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문화의 이해와 적용'을 주제로 베트남 보육시설 견학, 다문화 가정 방문, 다문화 프로그램 적용 방안 토의, 교사 네트워크 시간 등으로 진행되었다.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가입 지원

연합회는 연합회 실무자와 회원YWCA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가입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동행'은 공익활동가의 공제회 설립을 목표로 소액대출, 긴급자금대출, 건강검진 지원, 상호부조, 액티비스트뱅크 시범사업 등을 운영하고자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연합회 실무자와 회원 Y 사무총장이 조합원으로 가입 시 출자금 등을 지원하게 된다.

신간 소개

왜 눈떠야 할까-신앙을 축제로 이끄는 열여섯 마당
(김기석 김신일 백소영 유성희 장윤재 외 11명, 신앙과지성사, 2015. 9. 9. 발간)



한국교회는 오늘날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의 단계를 넘어 '생각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기이다. 책의 1부에서는 '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눈떠야 할까?'라는 주제로 환경, 사회, 교육, 여성, 복지, 미술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필자들이 세상에 대해 제대로 알

아야 함을 피력한다. 여성 부분의 필자로 연합회 유성희 사무총장이 글을 썼다. 그리스도교 여성운동으로 93년 한국 YWCA의 활동들이 소개되어 있다. 2부에서는 왜 그리스도인이 진리에 눈떠야 할지 생각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도록 인도한다. 살아 움직이는 신앙과 삶을 직시하는 인문학의 조화로 세상과 진리에 대해 제대로 알고 동시에 제대로 소통하게 해주는 지침서가 될 것이다.

북부

강릉YWCA | 정경진 간사

독거어르신 여름나기 선풍기지원
무더위에 지친 독거어르신들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선풍기 100대가 지원되었다. 인디언 강릉축전직영점(대표: 원봉호)의 후원으로 더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 보다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후원받은 선풍기를 생활관리사들이 어르신댁에 방문해 제품을 설치, 사용법 안내를 전달하여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동해YWCA | 안지원 간사

동해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꿈꾸지' 개소식
8월 17일(월)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설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동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꿈꾸지'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은 전경애 동해Y 회장의 인사말과 각계 각층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고, 이어 1층 현관에서 현판식을 진행했다. 동해 진로직업체험센터는 현 정부의 교육 핵심과제인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직업체험실무전담기구로서 지역사회 직업체험장을 발굴하고 학교와 직업체험장 간 유기적 연계를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



게 되며, 필요에 따라 토요 진로학교 및 상설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서울YWCA | 성지희 간사

태국-미얀마 국경지역 난민을 위한 봉사활동
7월 8일(수)부터 7월 18일(토)까지 태국-미얀마 국경지역인 매홍손에서 '제8차 피스 인 아시아'를 진행했다. 난민촌 여학교 학생, 카안족 난민 마을 주민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봉사활동을 펼쳤다. 17명의 단원은 유난히 덥고 습했던 기후 속에서도 난민들과 따뜻한 우정을 쌓고 돌아왔다. 이 활동은 성주재단이 매년 후원하고 있다.



속초YWCA | 정인숙 간사

봉대클럽 협약식
8월 22일(토) 봉대클럽 대표 이서원 교수와 봉대클럽 협약식을 진행했다. '봉대클럽'은 가족으로부터 상처받고, 상처 준 사람들이 모여 상처 난 부위를 봉대로 감싸주고 치료해 주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모임이다. 본 협약을 통해 속초지역 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들의 교육, 상담 및 치유를 위해 속초봉대클럽을 설립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정착시키고 발전할 수 있



도록 공동노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한다.

인천YWCA | 최슬기 간사

위안부 수요집회 참여한 인천Y-틴
인천Y-틴 회원들은 7월 29일(수) 오후 1시 주한일본대사관에서 진행되는 제1189회 위안부 수요집회에 참여했다. 인천Y-틴은 나라사랑 강의와 견학을 통하여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고, 나라사랑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수요시위 이후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을 방문하여 위안부와 여성인권에 대한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지고, 나라사랑에 대한 밑거름이 되는 시간을 가졌다.



춘천YWCA | 진소정 차장

가정관리전문가 양성과정 개강
8월 24일(월)부터 9월 16일(수)까지 가정관리전문가 양성과정을 진행한다. 시여성발전기금으로 진행되는 이 과정은 춘천시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살림(가사), 아기돌봄(베이비시터), 정리수납2급의 교육과정을 배운다. 18일의 교육 이수 후 맞벌이 가정 또는 바쁜 일상으로 가사일과 아이양육에 부담을 느끼는 가정에 살림돌보미 또는 아기돌보미, 정리수납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경기

고양YWCA | 남궁혜경 국장

방사능안전급식조례제정 주민청원서명운동
고양YWCA는 지역사회 27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방사능안전고양네트워크를 발족한 후 영유아시설 및 학교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지원하는 조례

를 제정하기 위해 7월부터 주민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민 2만명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여야를 막론하고 각 정당 의 의원들이 함께 공동발의를 하기로 결정하여 조레안이 준비 중이다. 고양시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조례가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남양주YWCA | 이정은 간사

미술동화구연강사 수료식
7월 29일(수) 미술동화구연강사 자격증반 수료식을 가졌다. 30명의 교육생이 단 한명의 낙오도 없이 3급과 2급 강사 과정을 100% 수료했다. 미술동화구연은 동화 내용에 미술 시연을 삽입하여, 미술에 교육적인 효과를 접목시키고 동화구연에는 흥미와 집중력을 부여함으로써 교육적 자료로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였다. 자격증 취득 후 여성들이 지역 내 도서관, 요양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과 연계하여 활동 영역을 넓혀 재능기부 등의 봉사활동과 전문직업여성을 양성하길 기대한다.

부천YWCA | 이지원 간사

부천시민통일문화제
매년 광복절에 진행되는 부천시민통일문화제에 올해에도 참가하여 YWCA의 북한어린이 분유보내기 운동을 소개하고 북한 어린이들의 실상을 알리며 분유보내기 운동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이 북한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기부박스에 동전을 넣던 그 마음이 북한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온기로 꼭 전달되기를 바란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지금, 얼어붙은 남북관계 속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로 통일을 외치고, 염원하고,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성남YWCA | 전아영 간사

다래교실
결혼이민여성에게 전문취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래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5월부터 진행된 본 프로그램은 다문화강사 양성과정으로 기초소양교육 종결 후 직접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다문화이해 교육을 실시하는 인턴십 과정을 진행 중에 있다. 다문화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필요한만큼 수료생들의 중요한 역할을 기대해 본다.



수원YWCA | 정지영 간사

다문화가족 자녀 내모습알기캠프
다문화가족 초등학교생의 자아정체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8월 29일(토) '다문화가족 자녀 내모습알기캠프'를 송암스페이스센터에서 진행했다. 60여 명의 참가자들은 우주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과 에어로켓발사, 야광성도 만들기, 천체관측 등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내모습알기캠프는 매월 1회 낙농, 직업체험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11월까지 3회 더 진행할 예정이다.



안양YWCA | 이규숙 팀장

청소년 예산! 우리 눈으로, 우리 손으로
8월 10일(월) 안양시청에서 제4회 안양시 청소년 참여예산제

안 발표 및 간담회를 가졌다. 올해는 초등학교까지 대상을 넓혀 초중고 각각 2개교씩 총 6개 학교를 방문하여 1,000여건의 청소년 정책과 예산제안을 받았다. 이중 학생 투표와 안양YWCA 심의를 통해 150여건을 선정하여 안양시 예산과, 교육청소년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2차 심의회의를 거쳐 최종 11건이 선정되었다. 발표회에는 안양시의회 부의장 및 안양시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하여 안양시 유관부서장들이 참석하여 청소년 제안발표를 듣고, 예산반영과 정책수립에 대한 답변을 주었다. 참여한 어린이, 청소년 발표자들은 우리 눈으로 살피고, 우리 손으로 만든 제안들이 반영되는 자리가 있다는 것에 기뻐하며, 민주시민으로서 뿌듯함을 느꼈다. 또한 학부모와 교사, 지역주민들도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제안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으며 청소년들의 성장을 격려해 주었다.



의정부YWCA | 이미진 간사

바라봄. 마주봄. 이제 봄.
(양육미혼모 가정을 위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지난 7월 15일(수)부터 양육미혼모자 가정을 위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봄'을 진행하고 있다. 양육미혼모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 약자로 구분되는 양육미혼모가 그들의 아이들을 위해 동화책을 제작하여 지역사회에 배포함으로써 양육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깨고자 한다. 이들은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안을 수 있도록 독서치료 3회기를 진행했으며 현재는 동화를 제작 중에 있다. 이후 지역사회 인식개선 캠페인을 의정부 지역 중, 고등학교와 인사동 등지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중부

논산YWCA | 권연정 팀장

청소년 'on情(정)on感(감)' I LOVE 인문학 & 공정여행
8월 10일(월)부터 8월 15일(토)까지 20명의 Y-틴이 참여한

on情(정)on感(감) 프로그램은 자기진단 프로그램, '안전한 먹거리와 나' 등 다양한 주제의 인문학 강의와 함께 대흥동을 여행하며 나눔이 살아있는 공정여행으로 진행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대흥동 원도심 거리를 걸으며 예술가들이 들려주는 대흥동 거리의 소소하고 재미난 이야기를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여인숙 주차장을 개조해 만든 파킹(parking) 갤러리에서 미술체험활동을 가진 청소년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대전 YWCA | 김지찬 팀장

대학청년 해외봉사활동 '라오스의 선물'
8월 17일(월)부터 23일(일)까지 대학생 해외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라오스 비엔티엔과 방비엥 일대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 봉사 및 문화체험을 진행했다. 9명의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였으며 라오스 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후원 받은 물품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세종 YWCA | 배진희 간사

아이 돌보미 양성 교육
7월 13일(월)부터 아이돌보미 기본교육과 아동발달단계별 교육을 80시간 과정으로 진행했다. 돌보미 교육을 통해 양육전문가를 양성하는 본 교육과정은 25명의 돌보미 활동 희망자 교육생들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의에 찬 모습으로 수업에 임해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제천 YWCA | 이경희 부장

찾아가는 금융경제 교육
7월 21일(화)부터 22일(수)까지 봉양 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어린이 금융체험교실 교육을 실시하였다. 돈은 꼭 필요한 곳에 생각하고 사용하고 예산계획을 세우며, 지출을 기록하는 방법을 배우고, 어린이들이 활동기업가가 되어 물건을 만들어 이익금을 가지고 기부활동을 하며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배우고 익히는 체험 활동이었다. 특히 기부체험에서 기부할 곳을 선택해 "유기견들을 위해 써 주세요. 아프리카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어린이를 위해 써 주세요. 노숙자들의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위해 써 주세요" 라며 돈을 벌면 꼭 기부하는 어른이 되겠다고 따뜻한 감동의 소감을 전했다. 봉양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교육, 생산, 판매, 구매, 은행체험, 진정한 기부 등을 통해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청주 YWCA | 최지경 간사

골목까지 안전한 마을 만들기
청주YWCA는 '골목까지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창동 주민센터와 청주YWCA는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안전문제 해결과 공동체 의식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7월 15일(수) 청주 사창동 주민센터 협약식과 함께 마을사랑 카페 '수다의 힘'을 개강하였다. 매주 마을 주민들과 통장들이 사창동 주민센터에 모여,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골목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 더미, 개인 주택 앞에 놓인 간이화장실, 불편한 주차 공간 등을 놓고 시민의 힘으로 안전한 마을 만들기 한창이다.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예정이다.



충주 YWCA | 김애영 부장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인형극
65세 이상 어르신 10명으로 구성된 환경인형극단이 지난 4월부터 교육과 공연연습을 시작한 후 7월 16일(목) 백합어린이

집을 시작으로 6회 공연을 진행했다. 금년도 14회 공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찾아가 어린이들에게 재미있고 쉬운 환경교육을 인형극을 통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서부

광주 YWCA | 손유영 부장

청소년국제캠프 'My dream! 여행으로 증명하라!'
7월 21일(화)부터 8월 3일(월)까지 13박14일 동안 유럽 4개국(독일, 스위스, 프랑스, 영국) 10개 도시를 탐방한 2015년 청소년국제캠프는 'My dream! 여행으로 증명하라!'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총 25명의 청소년이 참가하였다. 이번 캠프는 청소년들이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문화유연성을 기르고, 다양한 연령대가 서로 어우러지는 시간이 되었다. 이들이 소통과 화합하는 방법을 아는 이 사회에 꼭 필요한 리더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남원 YWCA | 박경은 간사

애들아, 밥먹자
8월 11일(화) 쌀의 소중함을 알고, 쌀과 친해지는 시간을 갖고

자 '김부각 만들기' 체험을 Y-틴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남원Y아나바다나눔터 팀장과 교사들이 참석해 직접 아이들 한 사람과 짝을 이루어 김부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어 아이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직접 만들어 봄으로 쌀과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쌀로 만든 음식의 다양함을 알고, 쌀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목포 YWCA | 박수현 부장

신안1004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현판식
7월 24일(금) 강당에서 전라남도 신안교육지원청과 자유학기제 및 진로직업체험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안1004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현판식을 가졌다. '신안1004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신안군 관내 15개 중학교 600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기 위한 다양한 진로 교육, 진로 체험지원산망 '꿈길'을 운영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적 서비스 지원, 비전엑스포(직업체험박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귀포 YWCA | 김수진 간사

2015 여성취업박람회 '새일 만나는 날'
7월 23일(목) 서귀포YWCA회관에서 '2015 여성취업박람회-새일 만나는 날'을 개최하였다. 정철상 강사의 취업특강,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경력단절여성의 사례발표, 김신숙 서귀포YWCA회장의 인사말, 부광식 부시장과 현정화 위원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위원회) 축사가 이어졌다. 이후 진행된 행사에서는 300여 명의 여성구직자가 참여한 가운데 30개 기업이 참여하여 현장면접을 실시했고, 간접채용으로 참여한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알선을 지원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의 관심을 반영한 직종설명회(퍼스널컬러전문가, 병원코디네이터)를 진행되었다.

순천YWCA | 신현아 간사

제20회 농촌체험캠프

8월 13일(목)부터 14일(금)까지 순천 용오름마을에서 농촌체험캠프를 진행했다. 지도자 10명, 자원봉사자 31명이 참석하여 첫째 날은 개회예배와 장세순 부회장의 격려사로 시작했다. 마을에 계신 어르신들 댁에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1박 2일 동안 하천 쓰레기 줍기, 환경정리, 콩매기 등을 했다. 캠프를 통해 미래의 소비주체인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생활학습의 장이 되기를 희망하며 농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소감을 나누었다.

여수YWCA | 박선주 간사

제12회 에너지의 날

‘불을 끄고 별을 켜다-에너지 모아 미래를 밝혀요’

에너지시민연대지원사업으로 비가정영역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 중으로, 제12회 에너지의 날을 맞이하여 8월 19일(수) 오후 6시 이순신광장에서 기념행사와 함께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펼쳤다. 이 날 행사장에서는 ‘불을 끄고 별을 켜다-에너지 모아 미래를 밝혀요’라는 슬로건과 함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어 시민들의 발길을 끌었다. 또한, 8월 20일(목) 저녁 9시부터 5분간 실시된 전국 동시 소등행사에는 여수엠블호텔, 사랑재활요양병원, 한빛교회, 진남상가에서 참여하여 에너지 절감에 한 몫을 하였다. 올여름 폭염으로 연일 전력수요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여수Y는 두 차례에 걸쳐 ‘올여름 에너지를 부탁해’라는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전주YWCA | 김은진 부장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키우는 우리 한우’ 사업 성황

8월 26일(수)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키우는 우리 한우’ 사

업을 시작했다. 본 행사는 소비자 교육을 통하여 한우유통 및 소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안전한 바른 먹거리를 확산하는 생명살림 운동으로 로컬푸드와 한우농가를 직접 찾아 체험활동을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을 이루고자 기획되었다. 생산자와 소비자 상생을 위한 교육 및 현장체험, 건강한 우리 한우 확산을 위한 ‘한우박람회’가 9월부터 11월까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제주YWCA | 이유리 간사

2015 평화아카데미 제4강

‘위안부 그들은 누구인가! 조정래 감독을 만나다’

8월 19일(수) 오후 3시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5년 평화아카데미’ 제4강을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귀향’의 조정래 감독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이번 강연에서는 영화 ‘귀향’의 제작과정과 크라우드 펀딩으로 제작비를 모았던 과정,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에 대한 감독의 생각 등을 함께 나누었다. 조정래 감독은 “현재 촬영은 완료되었고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다. 12월 말까지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초대를 받아 전세계인들에게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널리 알려 할머니들을 보호해 주고 싶다. 또 4만5천여 명의 후원자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라고 덧붙였다.



동부

거제YWCA | 홍윤정 팀장

회원증모발대식

7월 21일(화)에 회장, 이사, 실무자가 참여하여 회원증모발대식을 개최하였다. 1부로 개회예배를 마치고 2부 ‘무조건 하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거제YWCA 정길호 이사장의 강의를 진행되었다. 올해 회원증모운동은 회원증모대대를 5개로 나누어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조편성을 하고 회원은 380명, 금액 36,600,000원을 목표로 40여 일간 진행된다.

김해YWCA | 배정숙 부장

취업자 힐링데이 행사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9월 3일(목) 센터 2층에서 2015년 새일센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취업자 힐링데이 행사를 실시했다. 직장에서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장기 고용 유지를 위한 사후사업으로 진행된 금번 행사에서는 2015년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취업한 취업자 30명이 참석하여 다과를 나누고, 나만의 작품-넵킨아트로 장식하는 장지갑을 만들어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YWCA | 이수빈 간사

착한EM 활동가 교육

지난 6월 12일(금)부터 7월 24일(금)까지 총 5회차로 EM활동가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대구시민 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EM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생활용품과 화장품에 EM을 접목시켜 만들어 보고 사용함으로써 그 효과를 교육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수료식에서는 EM실천 생활나눔과 함께

교육 중 만든 EM흙공을 활용하여 대구 내 수질이 오염된 저수지를 방문하여 투척활동을 했다. 교육을 수료한 착한EM 활동가는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찾아가는 EM교실’이라는 후속 프로그램 실습을 통해 활동할 예정이며, 이들을 통하여 EM이 대구시민들에게 널리 확산되어 보다 체계적인 환경운동을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



마산YWCA | 이애라 부장

농식품스마트소비아카데미 지원사업 진행

경상남도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함께 2015년 농식품 스마트소비아카데미 지원사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 21일(금)에는 경상남도가 선정한 스타팜(의령초청한과마을)에서 강정만들기 체험을 진행하고 ‘제철농식품과 식량주권’이라는 주제로 실천하는 식생활 교육도 이루어졌다. 스타팜 체험 외에도 농식품스마트소비 아카데미 프로그램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레시피 요리교실, 아침식탁문화조성을 위한 캠페인, 대학생 농활 등으로 계속 될 예정이다.

부산YWCA | 윤영인 간사

창립 69주년 기념예배

7월 7일(화) 부산YWCA 강당에서 임직원, 이사, 위원,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 69주년 기념예배가 진행되었



다. 홍순옥 제2부회장의 인사말, 강옥재 증경회장의 격려사, 장윤재(이화여대) 목사의 영성강의, 합창단의 축하합창, 북한 어린이 분유보내기 모금 등 은혜로운 기념예배를 가졌다.

사천 YWCA | 정희경 간사

재래시장 이용 및 에너지절약 캠페인 실시
7월 29일(수) 삼천포 5일장이 열리는 새시장 일대에서 사천시 민 및 상인들을 대상으로 재래시장 이용 및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실시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및 전력위기 해소를 위한 에너지절약 방법 안내 및 홍보물을 배포하였다.



양산 YWCA | 박경하 간사

청소년 소비자 경제교육
8월 14일(금) 관내 초등학교(25명)를 대상으로 한국은행 화폐박물관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견학했다. 이번 청소년 소비자 경제교육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키워 주기 위해 다양한 게임과 퀴즈를 통하여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진행했다. 양산Y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소비생활 습관 형성과 기초적인 경제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경제마인드 형성과 합리적인 소비자로서 미래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진주 YWCA | 김태진 간사

제4회 에너지의 날 소등행사 '불을 끄고 별을 쬐다'
올해로 네 번째 맞이하는 에너지의 날 소등행사는 제12회 에너지의 날을 기념하여 지난 8월 21일(금) 평거동 엠코더프라하(11,813세대) 입주민들과 에너지의 날 인식 확산과 에너지 절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사전 행사로 입주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EM 발효액, EM 비누 만들기, 탈핵 부스, 자가발전기를 이용한 주스 만들기와 작은 음악회 등으로 주민축제의 장을 펼치며 저녁 9시에는 80% 이상의 세대들이 한등끄기 행사에 함께하며 5분 동안이지만 에너지절약을 몸소 실천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진주시민 모두가 에너지 절약에 관심을 가지며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 이 프로그램은 푸른진주21이 후원하며 진주 YWCA가 주관하였다.



진해 YWCA | 정유민 간사

초록지킴이 환경기자단
7월 18일(토) 청소년단체 활동지원사업 '초록지킴이 환경기자단' 발대식을 가졌다.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환경교육과 정찰활동 환경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4차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며 이번행사는 환경교육과 활동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발대식을 가졌다.

창원 YWCA | 정미영 간사

성 인지 모두모임
8월 27일(목) 성 인지 모두모임(시민활동가 양성과정)을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및 실무에 관한 내용을 신미란 사무국장(창원여성살림공동체)이 강의해 주셨다. 경남YWCA 실무자들이 함께 모여 성 인지 통계, 성 인지 예산서 및 평가서 등을 어떻게 이용하여 모니터링지를 작성할 것인지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한달에 1~2회 정기모임을 가지고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광복 70주년기념
제1회 평화나눔페스티벌

**한반도
평화에 물들다**

일시: 2015.10.6. (화요일 오후 5시 30분)
장소: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The 1st KOREAN PENINSULA
PEACE-SHARING FESTIVAL

| 출연진 | ● 진행 : 남희석 / 박윤신

인순이 / 임태경 / 스윗소로우 / Saxophonist 박광식
Violinist 콘 / 클래식 크로스오버 앙상블 인치엘로 / 바이올렛
탈북 Pianist 김철웅 / Ten. 신동원 / Bar. 이승왕 / Sop. 이영숙

● 주최 : 경기문화재단 | 한국 YWCA 연합회
● 주관 : (주)컬처리액션 ● 후원 : GOOD PEOPLE

예술총감독 | 진행
Yunshin Park



진행
Heeseok Nam



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保全)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0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의
전국 회원YWCA 가족**

| | | | | |
|------------------|------------------|------------------|------------------|------------------|
| 가 | 다 | 서 울 02.3705.6000 | 울 산 052.247.3520 | 천 안 041.575.0961 |
| 강 룡 033.651.1385 | 대 구 053.652.0070 | 서 천 041.951.6400 | 원 주 033.742.6090 | 청 주 043.265.3700 |
| 거 제 055.682.4950 | 대 전 042.254.3035 | 성 남 031.708.2503 | 의정부 031.853.6332 | 춘 천 033.254.4878 |
| 경 주 054.772.8141 | 동 해 033.531.3007 | 세 종 044.865.2432 | 익 산 063.857.8910 | 충 주 043.848.3240 |
| 고 양 031.919.4040 | 마 | 속 초 033.635.3523 | 인 천 032.424.0524 | 타 |
| 광 명 02.895.1966 | 마 산 055.246.8746 | 수 원 031.252.5111 | 자 | 통 영 055.646.2547 |
| 광 양 061.762.0012 | 목 포 061.242.1611 | 순 천 061.744.7990 | 전 주 063.224.5501 | 파 |
| 광 주 062.609.1300 | 바 | 아 | 제 주 064.711.8322 | 파 주 031.945.5998 |
| 김 해 055.332.6000 | 부 산 051.441.2221 | 안 동 054.854.5482 | 제 천 043.645.2580 | 평 택 031.651.7701 |
| 나 | 부 천 032.668.9700 | 안 산 031.483.6536 | 진 주 055.755.3463 | 포 향 054.274.4444 |
| 남양주 031.577.7762 | 사 | 안 양 031.455.2700 | 진 해 055.542.0020 | 하 |
| 남 원 063.632.7002 | 사 천 055.833.2344 | 양 산 055.367.1144 | 차 | 하 남 031.793.7771 |
| 논 산 041.736.7393 | 서귀포 064.762.1400 | 여 수 061.654.2161 | 창 원 055.283.9488 | |